



[종합] 국내 車시장 SUV가 장악 신타페·렉스턴 “픽 미!” 06



Economy

코스피	2396.56 (-56.75)	코스닥	829.96 (-28.21)
금리 (미국 3년)	2.25 (-0.01)	환율 (원/달러)	1086.60 (-4.90) (7일)

삼성이 움직인다... JY, 반도체 투자 전격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경영위원회

2생산라인 건설 추진 확정 대규모 M&A·설비 확장 등 미래먹거리 창출 속도 기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평택 1라인) 외경.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이후 삼성의 ‘스피드 경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7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 건설 추진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첫 투자 발표다.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인수합병(M&A)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감이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외신 역시 이 부회장의 신규 투자를 통해 혁신 경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전 7시 30분 경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기구로, 삼성전자의 3대 사업부문장들이 주요 구성원이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실무기구다.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사실상 모두 여기서 이뤄진다.

이번 경영위원회에서는 제2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기초 골조공사를 시작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첫 투자 발표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오전 7시 30분부터 경영위원회가 열렸으며, 상정 안건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30여 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되며 마무리됐다”며 “투자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투자 결정은 이 부회장의 석방 이후 사실상 첫 번째 투자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실적발표에서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 석방 후 빠르게 투자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삼성 특유의 스피드경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외신 역시 이 부회장이 혁신 경영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이 부회장이 수감됐던 지난해 삼성전자는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 부회장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구현하는데 부족했

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실리콘밸리식 사고방식으로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삼성전자의 혁신을 이끌었다”며 지난 2016년 미국의 자동차 오디오기업인 하만 인수를 사례로 들었다.

포브스는 “이 부회장이 석방 후 삼성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M&A를 시도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삼성이 리더십 공백을 끝내고,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너머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언론인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이 부회장이 풀려난 만큼 M&A나 반도체 설비 확장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며칠 전까지도 투자 계획에 대해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이 부회장 석방 며칠도 안 돼 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후 삼성의 중장기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석방 사흘째인 이날도 공식 일정 없이 경영 복귀를 위한 구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손 흔들며 인사하는 북측 응원단

7일 오후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북측 방문단이 강

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 도착해 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폐 논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혁신창업 메카로 재탄생

중기부 세부 운영방안 발표

장점은 살리고 단점 보완 벤처·중견기업·대학 등 참여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있는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가 ‘지역 혁신창업 메카’로 탈바꿈한다.

이곳에서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선 창업자금, 연구개발(R&D) 지원,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또 혁신창업 포럼, 스타트업 기업설명회(IR)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센터들 ‘한국판 TED’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구조는 ‘개방’을 통해 지역의 벤처·중견기업, 대학 등을 폭넓게 참여 시키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 줄곧 써왔던 ‘창조경제’란 간판은 바꿔달지 않기로 했다. 일반에 각인된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열린 정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혁신센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가장 주목한 것은 ‘창업’이다.

특히 혁신센터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충북, 세종, 전북, 경남, 전남, 제주 등에 두루 자리를 잡고 있어 제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한다던 지역의 창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혁신센터가 스타트업을 발굴할 때는 엄격하게 하되, 확실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센터가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은 정부의 창업·투자 지원시 패스트 트랙으로 연계해 일관지원할 계획”이라며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센터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확대

하고 아울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항이나 팁스(TIPS) 운용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주 스타트업들이 혁신센터를 졸업하면 지원이 끊겨 추가 성장에 애를 먹던 기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의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나 테크노파크(TP)와 연계해 투자 및 판로 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다.

대기업 외에도 혁신센터 협력파트너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혁신센터의 경우 기존 CJ 외에도 스타벅스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벤처캐피털인 타임 와이즈와 전문 액셀러레이터 N15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가상화폐는 유가증권... 韓정부가 가격 조작”

美 의회 가상화폐 청문회

해외 투자자 보호 못 받아 ICO 자격 제한 등 논의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를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입장이 강조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상화폐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많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래소’라고 부른다”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CO(가상화폐공개) 투자자 역시 IPO(기업공개) 투자자에 준한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외 ICO 투자는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美 의회에서 가상화폐 청문회가 열렸다. 이 청문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 필요하다면 ICO 참가 자격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주체들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원 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정부는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이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표현된다”며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한 연방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의 일종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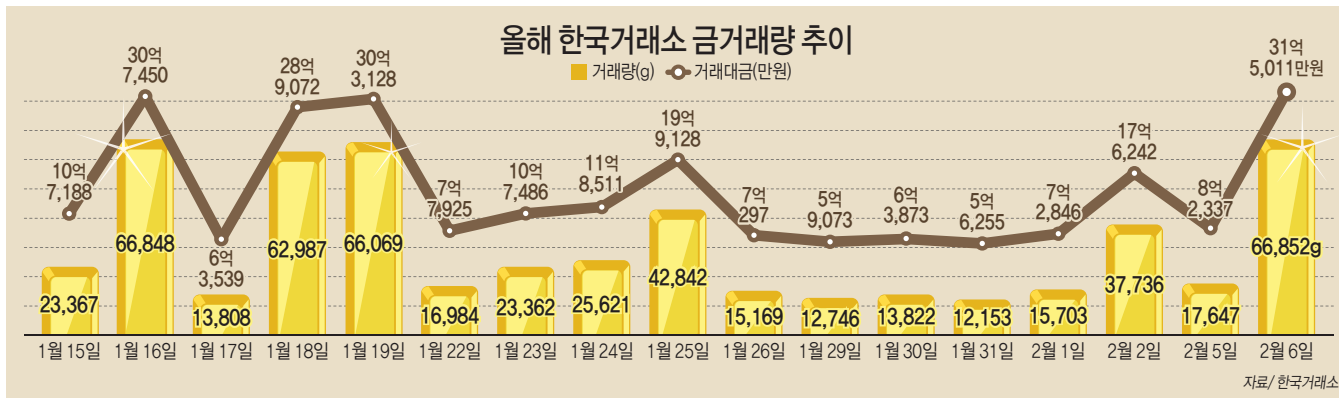
로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ICO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며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ICO가 SEC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ICO가 불법이며 이들을 제도에 끌어 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 증권법은 증권 거래를 ‘다른 사람의 기업 또는 경영수완으로 얻을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로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한 셈이다. <2면에 계속>

/오세성 기자 sesung@

美 금리인상 우려에 MMF 등 초단기 자산에 자금 몰려

코스피 하락... 채권·달러 선호현상
MMF설정액 지난 12월 이후 최대
KRX 금 거래량 6만6852g 달해



다. 1월 4대 시중은행의 외화예금은 496억500만 달러였다. 지난해 9월 말 404억7100만 달러보다 늘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00원 선을 넘나 들고 있어 외화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 국채금리 상승 폭 확대, 임금 상승압력 가중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강화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미국의 핵 태세 보고서(NPR) 공개로 북핵 리스크가 재부각된 점도 있다”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급격히 약화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며 원화 약세압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투자금융(IB) 업계에서는 시장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금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주식 및 채권시장이 받을 충격의 크기가 다른 데다 유럽과 일본 등의 통화정책 방향도 변수로 꼽힌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 투자자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몰려온 돈이 몰리고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달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MF 설정액은 5일 현재 125조3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9일 97조원대까지 떨어졌던 MMF 설정액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MMF는 단기 자금 투자처이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킹(돈을 맡기는)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MMF에 자금을 몰아둔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을 꺼린다는 뜻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가 ‘패닉’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선뜻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없다.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증시가 폭락하던 지난 6일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 거래량 거래량은 6만6852그램(g)에 달했다. 지난달 16일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거래대금도 31억5011만원에 달했다.

펀드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안전 제일’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 간 국내 채권형펀드는 1424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같은 기간 해외 채권형펀드에서는 4270억원이 이탈했다. 금리 리스크가 부각된 최근 1주일간에도 국내 채권에서는 174억원이 유입됐고, 해외 채권형에서는 1806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고용지표가 ‘불서’가 됐다. 1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 8년여 만

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횟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추가로 4차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를 찾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중 달러 예금은 707억달러였다. 2016년 말 대비 211억달러(42%) 늘었다. 1월 분위기도 비슷했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온상... 투자자 보호 인프라 구축을”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규제방안

“정부의 대응 지연 투자피해 키워
취급업자 규제방안 먼저 마련해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폭락으로 ‘비트코인 블루(가격 급등락에 따른 우울감)’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내용은 대부분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정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사진)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이 열렸다. /유재희 인턴기자

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달 한 달간에만 14건에 달했다.

안 교수는 “실제 가상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범죄가 극성이지만 피해사례 건수 등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의 집

계나 공개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 발생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미비하다”고 역설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의장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정리부터 과세정책 등을 명료화해야 누구를,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가 뚜렷해 질 것”이라며 “현재는 자금 세탁방지차원과 다단계 사

기방지 차원의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화폐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면서 전국민적 투기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키운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

해서라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열린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성토도 이어졌지만 블록체인의 기술 등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대책들을 정부 내부의 조율도 없이 선불리 내놓으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통제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자정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실명제 등 정부의 전면적 규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등 벤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미 기자-유재희 인턴기자 smahn1@metroseoul.co.kr

빛 내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 증시 변동성 키워다

코스닥 장 초반 874.48까지 상승

사상 최대로 늘어난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한동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코스닥은 장 초반 874.48까지 상승했다가 장 마감 직전 829.9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무려 5% 이상의 변동폭을 보였다. 코스피 역시 2481.20으로 시작한 지수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2396.56에 마감했다. 지난 6일에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장 초반 40%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증시 향방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장중 변동폭을 1167포인트까지 키우면서 변동성지수(VIX)는 50포인트를 상회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들이닥쳤던 2008년 12월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됐던 2015년 9월 이후 최고치다.

한국과 미국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는 빛 내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호황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과감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금리 인상이 우려되더라도 경제 호황 속에서 이러한 하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돈을 빌려 투자

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시 변동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마진 데비(Margin Debt·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는 국내총생산(GDP)의 3.4%까지 치솟았다. 정보기술(IT) 버블이 절정에 달했던 2000년 3월 말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진 데비 규모가 2.3%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말에는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 어느 때보다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한 상황이다.

한국의 신용거래용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5일 기준 해당 자금은 11조4248억원을 넘어섰다. 1년 전(7조309억원)과 비교해 63.1% 늘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제53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3월7일~3월29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3월10일~3월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 18일(일), 3월 25일(일), 3월 27일(화)

교육문의 02)521-9111 (강남역 5번출구)

김동연 “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장·속도·맞춤형 규제혁신 할 것 공공금융기관 연대 보증제 폐지 등 창업실패자 재기에 출자전환 도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2만개의 기업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생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 중관촌 창업 거리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며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 졸업생 800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100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촌에서 (창업으로) 기업 600만개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동연 부총리(오른쪽 세번째)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또 “현장·속도·맞춤형 규제혁신을 하겠다”며 “규제 저해요소인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

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방식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창업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얻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금융기관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하려는 경우 출자전환을 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뉴욕 주가 폭락에서 시작된 증시·환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을 발굴해 1분기 내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17건을 개선하는 등 연내 모두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현장규제 27건과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관련 규제 14건, 행정·그림자 규제 9건 등이다.

특히 올해 안에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가 50명 이상 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0명 미만 사업주에 한해 허용돼, 사업주가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2분기부터는 폐수배출 취급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해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저수지 상류 지역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앞으로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과 8000만원 이상의 용역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의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파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외치더니... 임시국회는 공전

정쟁만 몰두해 비판의 목소리 커져

여야의 대치국면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연일 파행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여야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따른 사퇴 요구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은 허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일부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대통령 올림픽을 치르기도 전에 이 시간에도 오로지 제1야당의 국회의원을 때려잡는데 모든 기획과 실전을 하고 있다”며 “정쟁을 없애고 평창 올림픽을 치러내고자 하는 제1야당의 순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산적한 법안들을 뒤로 미루고 일방적으로 파행을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모두 추측에 불과한 주장들을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인 주장과 내부 고발이 제1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절대 변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눈엣가시인 ‘권성동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한 검사의 실제 없는 폭로를 정치쟁점화하여 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권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게 유일하게 ‘갑질’한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며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길목을 막고 있는 자리에 딱하니 않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文대통령, 숨가쁜 외교 일정

캐나다·리투아니아와 잇단 정상회담

캐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리투아니아와 첨단기술·에너지 협력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2014년 9월 당시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한·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중심으로 통상, 과학기술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유지해왔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와는 인프라, 에너지,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오전엔 줄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 오후엔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트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와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엔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이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연일 ‘올림픽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8일이 하이라이트다. 이날엔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장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만찬도 함께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평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도 접견한다. 또 같은 날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도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줄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우주에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선물로 받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한국 전 3대 파병국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방국”이라고 사의를 표하고 “아이스하키(세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감독이 캐나다 출신임)는 한국인에게 친근한 종목으로 6·25전쟁 때 얼어붙은 임진강에서 캐나다 군인들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며 항수를 달래고 전우애를 다졌다. 한국과 캐나다는 함께 피 흘리며 깊은 우정을 쌓아온 관계”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밝혔다.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로 내각(총리)의 요청으로 국가원수인 영국여왕이 총독을 임명한다. 총독은 여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 캐나다를 대표한다. 우주비행사 출신인 파이예트 총독은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여성으로 4번째 캐나다 총독이다.

이번에 한국을 처음 찾은 파이예트 총독은 우주비행사 출신답게 문 대통령에게 우주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선물했다. 파이예트 총독은 “우주선을 타고 한국을 바라보곤 했다”면서 “푸른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한반도를 바라보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은 하나”라고 말한 뒤 동계올림픽 경기종목 상징물이 들어 있는 은수저 세트를 답례품으로 건넸다.

오후에 진행된 문 대통령과 그리바우스카이트 리투아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첨단 과학기술·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해 에너지 자립을 위해 2014년에 자국의 클라이페다 항에 LNG 터미널을 건설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터미널의 핵심 시설인 LNG 저장선 ‘인디펜던스(Independence)호’를 건조한 바 있다. 이는 3억30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국민·바른정당 통합명 ‘바른미래당’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이 ‘바른미래당’으로 결정됐다.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추위 대변인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약칭 없이 ‘바른미래당’으로 할 것”이라면서 “당명 공모자 중 수상자를 선정해 오는 9일 PI(party identity·정당 이

미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지난번 당명 결정 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데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 지향이라는 취지를 살려 바른미래당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위 독립성 커진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초안 공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 기업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초안이 공개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의원실과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 대책과 올해 11월 시행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실효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지는 자율 규범이다. 회계제도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

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제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초안은 우선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사는 내부 감사부서도 함께 만들도록 권고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준은 현행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한 것으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 상법보다 엄격하다. /이봉준 기자 bj35sea@

황록 사퇴가 던진 메시지... 금융공기업 수장 “나 떨고 있니”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금융CEO 임기 미보장에 좌불안석 경영공백 장기화·낙하산 재현 우려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이 최근 돌연 사의를 표한 가운데 아직 임기가 남은 다른 금융공공기관장들의 자리 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이사장은 지난 5일 20개월 여의 임기를 남기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 고위층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현재 황 이사장의 사의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후임 신보 이사장은 임추위를 통해 복수의 임원 후보를 추천,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취임 15개월 만에 돌연 사퇴

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10월 말 취임해 오는 2019년 10월 말까지가 임기다. 갑작스

런 사임으로 취임 1년 3개월 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황 이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우리파이낸셜 사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꼽혀왔다. 취임 이후 이 같은 전문가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황 이사장의 돌연 사의는 석연찮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후임 이사장에 이미 내정됐고 황 이사장은 위로부서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물러났다”면서 “정부가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밀실야합’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다 보면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후임 이사장으론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와 최영록 세제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 다른 금융공공기관장들 역시 남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니하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오는 2020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김규욱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제기된다. 이보다 임기가 앞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2019년 11월)과 김도진 기업은행장(2019년 12월)도 비슷한 입장이다.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광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 교체가 확실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에 따른 금융공공기관 수장 교체가 가시화되면서 다른 기관장들 역시 불

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한편 신보 내부에선 현재 임원진들의 ‘경영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신보 내부 상임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황 이사장 사퇴로 인해 후임 인선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보 등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은 기관장에게 있다.

장욱진 신보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사업이 추진력을 잃는 등 내부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담당부처 역시 현재 금융위에서 문 정부 신설조직인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밀면서 신보 조직의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말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신보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위 소관이었던 기보는 이미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돼 기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보 역시 중기부로의 이관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신보가 공공 기금으로서 추진력 있게 관련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삼성 금융계열사 CEO인사 임박... ‘세대교체’ 되나

삼성생명·화재 오늘 임추위 개최 미전실출신 새 CEO 선임 가능성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고 경영자(CEO) 인사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삼성전자의 삼성물산 등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지만 보험·카드 등 금융계열사 인사는 미뤄왔다. 앞서 삼성그룹 인사에서 ‘세대교체’ 및 ‘성과주의’ 원칙에 따른 인선이 이뤄져 금융계열사 인사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화재는 8일, 삼성증권과 카드는 9일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CEO 인선에 착수한다.

삼성생명 등 4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내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때문에 각 사는 주총 전 임추위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받은 물론 이사회 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사회를 통한 주총 안건 확정과 해외 주주 등 위임장 임명 등 일정을 고려할 때 통상 한 달 전에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주 늦어도 설 명절까진 인사가 이뤄지도록 각 사가 CEO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두 사장 모두 오는 2020년까지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다.

지난해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1조 2925억원으로 전년 2조2185억원 대비 당기순이익이 39.9%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삼성생명의 순이익에 일회성 이익이 포함돼 이를 제외한 실적 순이익은 9361억원으로 사실상 순이익 증가세를 시현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5년 7827억원, 2016년 8409억원, 2017년 9202억원으로 3년 연속 순이익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의 경

우 전년 대비 11.6% 순이익이 증가했다.

다만 앞선 삼성그룹 인사에서 ‘60대 CEO 퇴진룰(rule)’이 적용되면서 업계에선 각 사의 세대교체 전망이 나왔다. 김 사장과 안 사장은 각각 1955년, 1956년생으로 모두 60대다. 실제 각 사 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최근 인사에서 60대에서 50대로의 세대교체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강조하면서 금융계열사 60대 CEO들의 자리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두 사장 모두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교체가 기정사실화됐다”고 전했다.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1956년생으로 마찬가지로 ‘60대 퇴진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하면서 3년 임기 역시 내달로 만료된다. 윤 사장 역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715억원으로 전년 1742억원 대비 55.8%나 급증했다. 영업이익 역시 3600억원으로 전년 2116억원 대비 70.1%나 늘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쇄신에 따른 세대교체로 새 CEO 취임이 전망된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1960년생으로 4개 금융계열사 중 유일한 50대다. 지난 2013년 12월 삼성카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현재 해체된,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출신 임원들이 이번 삼성 금융계열사 CEO로 새롭게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준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부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국내车市장, 'SUV'가 장악... 싼타페·렉스톤 "픽 미!"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SUV의 판매는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신형 싼타페를 선보이며 기아자동차의 쏘렌토와 중형 SUV 1위 경쟁을 예고했다.

또 SUV명가 쌍용차는 렉스톤 스포츠로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지엠은 에퀴노스 출시를 준비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현대차는 7일부터 신형 싼타페의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신형 싼타페는 '인간 중심 신개념 SUV'를 표방하며 첨단 신기술을 탑재했다. 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및 전방 충돌 경고(FCW), 차로

현대차, 신형싼타페 7일부터 사전계약 전방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기술 탑재

기아차, 쏘렌토 앞세워 1위 자리 지키기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이탈 경고(LDW),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등 다양한 핵심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또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 원격제어, 안전보안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블루링크 2.0'을 장착했으며, '카카오톡 I(아이)'의 음성인식 서버를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로 내비게이션의 검색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싼타페는 지난 2012년 3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 넘게 판매해온 노후 모델임에도 지난해 5만대가 넘게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적용한 만큼 쏘렌토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러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SUV 넥쏘를 다음달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중형 SUV 시장 절대 강자 쏘렌토를 앞세워 1위 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지난해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로 경쟁 불지퍼
지난달 기준 계약대수 9000여 대 육박

한국지엠, 중형 SUV 에퀴노스로 반격

9월 월 1만대를 판매한 쏘렌토는 출시 이후 줄곧 중형SUV 판매량 1위를 지키고 있다. 쏘렌토는 지난달에도 5906대가 판매되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2분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형 SUV 에퀴노스로 반격에 나선다.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만대 이상 판매되며 경쟁력을 인정받은 에퀴노스는 현재 국내 마무리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3000만원 초반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국산차와 정면 승부에 나선다.

SUV명가 쌍용차는 올 초 렉스톤 스포츠를 선보이며 가장 먼저 국산 중형 SUV 경쟁에 불을 지폈다.

G4렉스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렉스톤 스포츠는 출시와 동시에 2000대 이상이 판매됐으며 지난달 말 기준 계약대수가 9000여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브랜드도 다양한 SUV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BMW 코리아는 SUV 'X시리즈'의 풀라인업을 구축해 판매 공세를 강화한다. 기존 X1, X3, X4, X5, X6 등 5개 라인업에 3월 출시 예정인 X2가 가세하면 총 6개 모델로 늘어난다. 특히 X2는 X3보다 가격이 낮은 데다 '작수' 시리즈의 디자인 혁신 등을 내세워 고객 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BMW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엔 X4와 X5 풀 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이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의 2세대 완전 변경 신형 G클래스 역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G클래스는 메르세데스-벤츠 첫 SUV이자 대형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랜드로버도 대형 SUV 2018년형 뉴 레인지로버와 2018년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내달부터 판매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차 신형 싼타페.



▶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

샤오미 제품, 네이버 '클로바'로 켜고 끈다

네이버-中 샤오미, AI 동맹 MOU

네이버가 중국 IT기업 샤오미와 인공지능(AI) 동맹을 맺었다.

네이버는 AI 플랫폼 '클로바'와 샤오미의 기술 연계를 골자로 한 AI 분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샤오미 및 샤오미의 국내 총판인 여우미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 AI 플랫폼 클로바를 샤오미의 AI 기술과 연계해 기술 시너지를 꾀하는 동시에 샤오미 사물인터넷(IoT) 기기군으로 AI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MOU에 따라 향후 네이버 클로바 음성인식 기술로 샤오미 IoT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샤오미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자사 IoT 기기의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네이버와 협력해 AI 기술력도 제고할 발판을 마련했다.

샤오미의 국내 총판 여우미는 양사의 원활한 협력을 보조할 계획이다.

최인혁 네이버 총괄부사장은 "이번 샤오미-여우미와 제휴로 클로바를 통한 IoT 환경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왼쪽부터) 최인혁 네이버 총괄부사장, 흥취 샤오미 글로벌전략부사장, 한문호 여우미 대표가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클로바가 이용자들에게 일상생활 속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취 샤오미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은 "향후 한국 시장에서 출시하는 모든 샤오미 제품을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샤오미 제품을 더욱 친숙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LS그룹, 주주 권익보호·경영 투명성 강화

계열사·사외이사 구성 '내부거래' 신설

활동내용 정기적으로 외부 공개
대규모 내부거래·이사겸직 등 심의

LS그룹이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한다.

LS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고,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그룹 내 주요 계열사 간 이뤄지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겸직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상반기 내 상장사인 ㈜LS, LS산전, 가온전선에서 우선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가 신설된다. E1과 예스코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LS그룹

또한 LS는 그룹 내 자산 2조원 이상인 면서 상장회사인 ㈜LS, LS산전, E1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사내이사에서 각 회사의 사외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LS는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올해 슈퍼 주주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피해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한다.

특정일에 날짜가 겹쳐 주주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올해 슈퍼 주주대회가 예상되는 3월 23일, 29일, 30일을 피해 LS산전 20일, LS전선아시아 22일, 가온전선 27일, ㈜LS 28일로 각각 주주총회 날짜를 결정했다.

LS그룹 관계자는 "LS는 올해 초 가온전선과 예스코를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 및 전환해 지배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또한 실행하고 있다"며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엔씨소프트 '리니지M' 업고 '2조클럽' 노린다

엔씨소프트가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흥행에 힘입어 연매출 '2조 클럽'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간 매출 1조 7587억원, 영업이익이 5850억원, 당기순이익 4439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78%, 당기순이익은 64% 각각 성장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다.

4분기 실적은 매출 5333억원, 영업이익 1892억원, 당기순이익 12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 86%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81% 증가했다.

연간 매출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1조3340억원, 북미·유럽 1404억원, 일본 433억원, 대만 383억원이다. 로열티 매출은 2028억원이다.

엔씨소프트 실적은 '리니지M' 등 모바일게임이 견인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알뜰폰업계, CJ헬로 주축으로 힘 모은다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알뜰폰 업계가 힘을 모은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신임 회장으로 SK텔레콤 임원 출신의 이석환 인스코비 사장이 선출됐고, 업계 1위의 CJ헬로가 협회 내 출범 예정인 비상대책반을 이끌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CJ헬로는 7일 열린 협회 총회에서 협회 이사로서 협회 내 비상대책반을 이끌며 도매대가 개선, 전파세 감면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주도하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CJ헬로는 지난해 11월 협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사 간 이견차를 이유로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알뜰폰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CJ헬로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환경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며 "CJ헬로를 비롯 회원사들이 알뜰폰 사업의 명운을 걸고 사업환경 개선과 알뜰폰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비상대책반 활동은 망 도매대가 협상을 위주로 각 사들이 협의해 다듬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제5대 회장에는 이석환 인스코비 사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날부로 정식 취임해 내년 정기총회까지 1년이다.

이석환 신임 회장은 SK텔레콤 마케팅 본부장, SK텔레콤 차이나 대표, SK네트웍스 ICT 총괄 사장 등을 거쳐 현재 알뜰폰 업체 인스코비와 자회사 프리텔레콤 사장을 맡고 있다. /김나인 기자



한국인은 아니지만 나는 신한인입니다

입사한지 16년만에
저는 최초의 현지인 지점장이 되었고,
신한은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계 금융이 되었습니다

나는 **新韓人**입니다

신한 베트남 은행 An Dong 지점장 | Trinh Bang Vu

“도수 내리고 용량 줄이고”... 올 주류 트렌드는 ‘가볍게’

미니사이즈 카테일·와인 등 출시
위스키·소주 등 ‘저도수’ 바람
칼로리·당 함량 낮춘 제품 인기



(왼쪽부터) 트위스트샷, 참나무통 맑은이슬, 골든블루 사피루스, /비어케이·하이트진로·골든블루

올해 주류 트렌드는 ‘줄이고·낮추고·작아지고’가 될 전망이다. 도수를 내리고, 용량을 줄이고, 열량을 낮춘 주류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렌드에 맞춰 ‘헤비(heavy)’한 타입의 주류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건강까지 생각한 제품으로 혼술족, 홀로족(나홀로+올로), 여성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밥’과 더불어 ‘혼술’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혼자 마시기 좋은 작은 용량의 주류 출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저용량 주류만을 모아 판매하는 전문 매대 ‘세븐바 시그니처’를 마련하는가 하면, 홈플러스는 미니사이즈 양주 기획 세트를 내놓기도 했다.

수입 주류 전문 유통 기업 비어케이(에이)는 한 샷 크기의 미니사이즈 RTD(Ready To Drink) ‘트위스트샷’을 출시했다. 트위스트샷은 25ml 사이즈로 분리된 잔에 두 가지 플레이버가 담겨있는 미니 카테일이다. 화려한 컬러와 상큼한 과일 플레이버로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겨냥했다.

와인도 미니사이즈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칠레산 와인 가포 네그로(Ga-

to Negro)는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375ml 용량의 미니패키지를 선보였다. 기존 와인 용량에 비해 약 절반 정도 사이즈에 플라스틱 위클잔으로 구성되어 1인 가구를 겨냥했다.

부담 없이 술을 즐기는 사회 분위기 확산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센 술’보다는 순한 술을 선호하는 흐름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업계는 위스키 업계다. 골든블루는 저도 위스키 시장을 개척했다. 부드럽고 순한 주류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40도 이하의 위스키를 내놓으며 저도주 열풍을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골든블루 사피루스’ 리뉴얼 제품이 약 2달 만에 100만병이 팔렸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17년산 몰트 위스키 원액을 사용한 35도 저도주로 더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을 출시했다. 제품명에도 낮은 도수의 부드러움을 강조한 ‘스무스’를 적용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소주도 순한 제품이 두드러진다. 하이트진로는 참나무통 숙성원액을 블렌딩한 프리미엄 소주 ‘참나무통 맑은이슬’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소주에 참나무통에서 3년 이상 숙성한 쌀 발효 증류 원액을 블렌딩했으며, 알코올 도수 16도로 부담 없이 즐기길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과 여성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무학은 창립 90주년을 맞아 선보인 신제품인 ‘좋은데이 1929’를 기존 좋은데이

보다 1도 낮은 15.9도로 출시했다. 만 19~29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제품은 젊은 소비자들의 주류 트렌드를 약 2년간 분석하여 기존 제품보다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도수를 낮추어 출시했다고 밝혔다.

즐겁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율로족들과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는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칼로리와 당 함량을 낮춘 술도 각광을 받고 있다.

롯데주류는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99% 줄이고 칼로리는 30% 가량 낮춘 순하리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 한 병 기준으로 각설탕 6~7개 분량에 달하는 당을 줄여, 과일향 소주를 좋아하지만 당 함량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여성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 등 최근 트렌드가 편리하고 가볍게 즐기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 저용량, 저도주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칼로리와 당 함량을 줄인 제품들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갑질’ 삼광글라스, 과징금 15억7200만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에 법인 고발
10개 업체가 11억3600억 손실 입어

삼광글라스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제조·판매 업체로, 알루미늄 캔은 하이트진로에 70%가량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품목단가를 일률적으로 2~7% 비율로 인하했다. 일률 단가 인하 품목은 유리용기 뚜껑, 골판지 박스, 금형 등이다.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은 모두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

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이 소유한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줄 때 협조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삼광글라스는 특히 밀폐용기 뚜껑 동맹세 거래 직전 평균 6%에 달하는 단가 인하를 했다. 서영이앤티에는 영업이익의 5.5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의 이번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자신의 경영세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마사회 “경마→승마 중심으로 방향 전환”

김낙순 신임 한국마사회장
이익보다 공익 위한 패러다임 변신

김낙순 신임 한국마사회장(사진)이 7일 “경마에서 승마 중심의 말산업 육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마사회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공익 위해서 어떻게 패러다임 바꿀 것인지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 ‘마사회’ 하면 ‘경마’만 얘기가 됐는데 이제는 마사회가 대한민국의 말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방향을 틀어야 한다”며 “말산업 육성으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승마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달 안에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제



시할 방안 1~2가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회장이던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연루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후임인 이양호 전 회장이 취임한 뒤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기관별 감사를 연달아 받았다.

여기에 경마장에서 근무하던 마필관

리사 및 마사회 간부 등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이 전 회장도 결국 임기를 2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마사회장으로 임명된 김 회장에 대한 마사회 안팎의 혁신 요구도 그만큼 거세다.

김 회장은 “그동안 마사회가 ‘적폐 기관’이라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선 밑에서부터 되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밑에서부터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운영 중단 사태를 맞은 테마파크 ‘위니월드’ 문제 등 현안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사회가 사업비 667억원에 투입해 2016년 10월 위니월드를 개장했지만, 수익 저조로 지난해 6월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홍물’로 전락했다.

김 회장은 “위니월드 등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 어떻게 마무리해서 국민에게 돌려줄지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연철뉴스

금강제화 ‘리갈’ 상표권 소송전 승리

日리갈코퍼레이션 법정공방 승소



금강제화 리갈

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체 1위 리갈코퍼레이션과의 법정 공방에서 1년간 다투 끝에 승소했다.

금강제화는 지난해 1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해 일본 리갈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한국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퍼레이션간 다섯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차, 5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일본 측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가 적법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강제 조정에도 나섰다.

이같은 배경으로는 과거 금강제화가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에 대해 일본 리갈코퍼레이션 측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제화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들인 점 등을 포함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언론을 통해 일본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접했을 때는 단순 소비자 혼란을 위한 당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됐으나 수 차례 법정 공방에서는 소송 자체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왔다”며 “리갈 상표 사용을 지속 침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CJ오쇼핑, 영업이익 1575억 ‘역대 최대’

CJ오쇼핑은 지난해 취급고 3조 7438억원, 영업이익 157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연간 취급고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취급고는 렌탈, 여행 등 무형상품 증가와 패션 중심의 단독상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4% 성장했다. T커머스 채널을 통한 취급고는 2016년 1075억원에서 2017년 2356억원으로 급증, 전년 대비 120% 올랐다.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체 개발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반복 구매율 및 구매 단가가 높은 ‘멀티고객’의 비중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8.7% 성장했다. 역대 최고였던 2013년 영업이익(1572억원)을 넘어섰다.

4분기 실적은 취급고 1조 319억원, 매출액 3121억원, 영업이익 419억원을 달성했다. CJ오쇼핑이 분기 취급고가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분기의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단독 패션 브랜드의 선전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특히 CJ오쇼핑이 자체적으로 기획·개발하는 온리원(OnlyOne) 브랜드의 롱패딩, 캐시미어 상품들이 높은 인기를 끌었고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 탓에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뷰티 상품이 판매 호조를 보였다.

T커머스 채널에서는 인테리어, 식품, 의류 등 T커머스에 최적화된 상품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매출을 올렸다.

또 CJ몰의 화면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바일 생방송 전용 채널인 ‘쇼크라이브’를 론칭하는 등 모바일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해외사업은 터키, 일본, 중국 남방, 인도의 사업구조 개선을 마무리했고 중국 천천, 베트남, 태국 법인은 이익 개선을 통해 흑자를 달성했다.

/김유진 기자

사노피

한미약품 당뇨신약 3상 과제 추가 진행

한미약품의 당뇨 치료 바이오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새로운 임상 3상 과제 2건이 올해 추가로 진행된다.

한미약품의 파트너사인 사노피는 7일(현지 시각) 가진 2017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노피는 3상 임상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미국 FDA에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시판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올해 4분기에 추가되는 임상 3상 중 하나는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기저 인슐린의 병용 요법 연구다.

두 기전의 조합은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함께, 인슐린의 단점으로 꼽히는 저혈당과 체중증가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 당뇨 치료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박인용 기자

삼성이 로마로 간 까닭은... 'AI·IoT 혁신' 전파하러

삼성 포럼

전세계 3000여명 거래선 참가
빅스비-TV·냉장고 등 연동 시연
서남아 특화 TV 라인업도 선보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부장 사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삼성 포럼'에서 "올해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5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전 세계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한 '삼성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삼성 포럼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행사다. 전 세계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사업전략을 공유한다. 올해는 이탈리아 등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서남아·CIS·중동·중남미·중국 등 순차적으로 전세계 3000여명의 거래선이 참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시부스에서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 등 삼성의 혁신기술



삼성전자 CE부부장 김현석 사장이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삼성 포럼'에서 올해 주요 제품과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 모바일·스마트 TV·패밀리허브 냉장고 등을 비롯해 제3차 기기 및 앱과 연동되고, 제어하는 시연을 펼쳤다.

또한 주요 사업부문별 혁신 제품과 지역 특화 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냉장고의 경우 진화된 음성인식 기술과 연결성으로 CES 2018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2018년형 패밀리허브'를 기존 4도어 제품 외 유럽 시장에 특화된 BMF(Bot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포럼' 전시부스에서 '2018년형 패밀리허브' 4도어 타입 냉장고(왼쪽)와 '퀵드라이브' 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tom Mount Freezer, 상냉장·하냉동 방식) 타입과 양문형 타입으로 선보였다.

동남아 포럼에서는 '트윈 쿨링 플러스 냉장고'를 지역 특화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독립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냉장실과 냉동실 간 냄새가 섞이지 않는다. 각각 끄거나 켤 수 있고 냉동실과 냉장실을 서로 전환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효율적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신모델에는 동남아 현지

소비자 조사를 통해 신규 발굴한 '렉스브라운' 컬러를 적용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탁기는 세탁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여 호평을 받고 있는 '퀵드라이브' 라인업을 세탁·건조 복합 모델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까지 확대했다.

에어컨은 B2B 강화 전략에 따라 벽걸이형 제품에서부터 1Way·4Way 등 상업

용 카세트형(천장형 실내기)까지 '무풍냉방' 기술을 확대 적용해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전시했다.

TV 부문은 올해 75형 이상 초대형 TV 수요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시장 대형화 흐름에 맞춘 기술과 제품 중심으로 전시장을 운영해 거래선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AI 고화질 변환 기술을 탑재해 CES에서 호평 받은 8K QLED TV 외 75형 이상 대형 QLED TV에 초점을 맞춰 ▲컬러볼륨 ▲HDR ▲명암비 측면을 강조한다.

서남아 포럼에서는 지역 특화 TV 모델인 '콘서트' 시리즈 라인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은 현지 시장 특성상 TV 시청시 주변 소음이 많고 종교 방송 비중이 높은 점에 착안해 보다 또렷하게 음향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강화된 사운드가 특징이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8·갤럭시S8 등 최신 스마트폰과 기어 스포츠·기어S3·2018년형 아이콘X 등 다양한 웨어러블 라인업을 전시해 거래선들에게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올림픽 기간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 개관

삼성전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를 9일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와 올림픽 선수촌, 평창 메인 프레젠테이션, 인천공항 등에 9개의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를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집약한 체험 공간에서 삼성의 브랜드 정신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Do What You Can't)'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팬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3069㎡ 규모로 꾸며진 강릉 올림픽 파크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에서는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과 가상현실 플랫폼 등

을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8과 기어 VR로 다양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 갤럭시 노트8로 나만의 셀피 사진을 꾸미고 UCC를 만들어 보는 '제품 체험존', 삼성전자가 휴대전화로 처음 출시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제품 역사와 올림픽 후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연박스 삼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키즈 라운지, 고객 서비스 존, 스페셜 이벤트 존 등 방문하는 선수단과 팬들이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VR 체험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VR 우주 미션: 인류의 달 탐사'는 달의 중력을 실현한 4D 가상현실로 탐사 미션을 수행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스노우보드, 스키투어 등 동계올림픽 종목에 4D 플랫폼의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도 있다.

/정은미 기자



LGU+, 노키아·퀄컴과 5G 통신 시연 성공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장비 제조사인 노키아, 단말칩 제조사인 퀄컴과 핀란드 노키아 본사에서 5세대(5G) 국제 표준 기반의 데이터 통신 시연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5G 국제표준화 단계인 '3GPP'가 지난해 12월에 5G 표준으로 승인한 'NSA(Non-Standalone)' 기반으로 진행됐다. NSA는 5G와 LTE를 융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3GPP는 NSA 표준에 이어 올해 상반기 5G 1차 규격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통신·장비사들은 3GPP의 표준 규격에 맞

춰 5G 기지국과 단말을 개발하게 된다.

그간 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은 5G 표준 대신 자체 규격으로 실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지국과 단말 간 유선으로 연결하여 시험하는데 그쳐 실제 무선통신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연은 5G 국제표준 규격으로 진행했고, 기지국과 시험 단말을 무선으로 연결해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장비·단말 제조사들이 LG유플러스와 함께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배출가스 없는 'SUV'... 가족과 타기 딱 좋네!



현대자동차 '넥쏘'

평창 메달하우스까지 시승 진행
시승 후 7km 자율주행도 마무리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물론 화학업계, IT업계도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차가 넥쏘를 개발하면서 최첨단 수소차의 기술력과 자율주행 기술을 총망라해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수소전기차 넥쏘의 기능을 시승을 통해 만나봤다. 넥쏘는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시승은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출발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메달하우스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우선 외관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비슷한 크기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와 비교하면 전장은 30mm, 전폭은 20mm 작고, 전고는 최대 60mm 낮다. 트렁크 용량도 839L로 가족용 SUV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 미래와 현재의 시각적 경계를 보여주는 호라이즌 포지셔닝 랩프, 클린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히든 리어 와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충전모습.

이퍼 등으로 기존 차량과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구현했다.

실내 공간은 친환경차의 특성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마감재를 바이오 플라스틱과 패브릭, 식물성 도료 등 U인 증 바이오소재를 사용했다. 대시보드 중간에 위치한 통합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수소전기차 특화 UX(사용자경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동을 걸어보면 진동과 소음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정숙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가스를 느낄 수 없다. 대신 하얀 수증기와 차량 시동을 끄면 깨끗한 물을 배출한다.

차량의 주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높여봤다. 수소전기차도 전기차다. 수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돌린다. 전동기는 최고 113kW(약 154마력), 최대 약 40.3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효율은 복합 기준 1kg당 96.2km(도심 99.5km/

kg, 고속도로 92.5km/kg)를 인증 받았다. 덕분에 정지 상태에 서 가속페달을 밟으면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다.

고속 구간에서 가속력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도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시승을 마친 후 평창 메달하우스를 출발해 시내도로 약 7km구간에서 넥쏘 자율주행차를 체험했다. 이날 자율주행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반자율주행·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자율주행 단계)을 적용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가 스스로 주행을 이어갔다.

넥쏘 자율주행차에는 전후방 및 측면에 총 6개의 라이다(LiDAR) 센서와 3개의 레이더(Radar) 센서, 3개의 카메라를 적용해 도로 위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상황을 보조석에 마련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넥쏘 자율주행차는 교통 신호를 받아 스스로 좌회전을 하고 공사 구간을 피해가는 등 안전한 주행을 이어갔다. 다만 교통 신호 없이 자유롭게 주행하는 회전 교차로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는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이어갔다.

한편 현대차는 9일부터 강릉과 평창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넥쏘 시승체험 및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과 IT신기술이 적용된 넥쏘 시승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주행모습.

카카오게임즈 “대중성 무기로 ‘3N’ 독주 막는다”

(넷마블게임즈·넥슨·엔씨소프트)

kakao games

개발 전문 ‘프렌즈게임즈’ 출범
‘캐주얼 게임사’로 입지 굳힐 것
IPO 추진, 하반기 상장완료 목표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프렌즈게임즈’ 출범을 알리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대중적으로 편하게 먹는 음식이 오래 살아남듯 대중성이라는 키워드로 캐주얼 게임의 강점을 살려나갈 것이다.”

넷마블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등이 이른바 ‘3N’의 독주 속에 ‘루키’로 떠오른 카카오게임즈가 개발 전문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를 출범하고, 캐주얼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의 골프 예약 서비스와 홀트레이닝 사업도 펼친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7일 서울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18 프리뷰’ 기자간담회에서 “프렌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프렌즈게임즈의 경쟁력을 세

워 대중성을 강점으로 독보적인 캐주얼 게임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프렌즈게임즈는 이날 카카오게임즈가 정식 출범을 선언한 개발자회사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프렌즈게임즈 초대 대표를 맡는다.

권미진, 김동준, 박영호 3명의 책임프로듀서를 중심으로 권현미, 박우람, 윤경

옥, 김준현, 최용규 PD가 각 개발 조직을 이끈다. 올해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큰 유통사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게임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선언이다.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은 프렌즈게임즈에서 담당하고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유통을 담당하는 식이다.

개발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는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인 ‘프렌즈’를 활용해 ‘프렌즈타운’, ‘프렌즈레이싱’, ‘프렌즈골프’ 등 신작 프렌즈 게임과 공포게임인 ‘화이트데이’ IP를 활용한 가상현실(VR) 게임 ‘화이트데이:담력시험’을 올해 내놓는다. 카카오게임즈는 기존처럼 모바일과 PC 온라인 등 게임 유통에 전념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PC게임 ‘배틀그라운드’ 주변 확대에 나서고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고객 접점 마케팅을 강화한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약 20종의 라인업을 내놓고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도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회사 카카오VX에서는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골프 부킹 서비스’와 홀트레이닝인 ‘홀트’ 등 신규 사업도 펼친다. 골프 부킹 서비스는 카카오의 AI 플랫폼 ‘챗봇’을 탑재해 이용자의 골프 스타일과 패턴 등을 분석하고, 카카오페이·카카오 드라이브와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에서 ‘유튜브’ 등 동영상으로 운동을 할 때 자세를 교정해주고 따라할 수 있는 홀트레이닝

서비스인 ‘홀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기업 공개에도 나선다. 카카오게임즈의 예상 시가총액은 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재관 카카오게임즈 CFO는 “상반기 중에 기업공개(IPO) 심사 청구를 할 계획이고 하반기 상장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IT 업체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게임사도 코스피에 상장하는 사례가 생겨 고민이 많다.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궁훈 대표는 최근 3N이 독주하고 있는 게임 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위치에 대해 “시가총액만으로 회사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카카오게임즈의 강점은 대중성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접근과는 다르다. 이들이 가진 게임 개발 등 강점은 보완하겠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캐주얼 게임이 가진 대중성으로 독보적 게임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에서 시연모델이 5G 기술을 이용한 ‘아이스하키 챌린지’를 체험해보고 있다. /KT

광화문서 만나는 평창... “5G 느껴보세요”

KT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 구축

KT는 서울에서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세계 최초 5G’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를 구축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광화문 KT 라이브 사이트는 올림픽이 개막하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는 일반 시민들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5G 네트워크와 ICT 기술이 접목된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약 250평 규모의 2층 높이 컨테이너 부스로 건설된 KT 라이브사이트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중앙광장에 위치해 있다.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에 방문하는 관람객은 평창이나 강릉에 가지 않더라도 5G 단말에서 옴니뷰와 같은 실감형 서비스로 5G 속도를 체험할 수 있다. 또 가

상공간에서 아이스하키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수의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해 5G로 다각도 영상을 받아보는 ‘타임슬라이스’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에서는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통해 직접 봅슬레이 선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봅슬레이 챌린지’, 5G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인 초저지연성을 활용해 모션 인식으로 봅슬레이, 드론, 자동차를 조종해 볼 수 있는 ‘커넥티드 스피드’ 등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 2층에는 오후 5시부터 KT 광화문 WEST 사옥 전면에 송출되는 미디어파사드로 올림픽 주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라운지’가 있다.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는 25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관람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뷰티레스트 블랙’ 신혼부부 혼수템으로 인기

(프리미엄 침대)

시몬스 ‘최고급 매트리스 컬렉션’
작년 120억 판매, 65% 신혼부부

행복한 침실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시몬스의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이 폭발적인 인기다. 초고가 수입 브랜드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심차게 선보인 국산 토종 브랜드가 신혼부부들의 혼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7일 시몬스에 따르면 2016년 7월에 선보인 뷰티레스트 블랙은 지난해까지 총 150억원 가량의 판매고를 올리며 고급 브랜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국내업체에선 5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침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블랙은 매트리스와 프레임 조합에 따라 500만~200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약 12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특히 시몬스의 자체 분석 결과 120억원 가운데 약 65%의 고객이 혼수용으로 구입했다. 지난해만 보면 1000만원대 전후인 뷰티레스트 블랙 구매 고객 10명 중 6.5명이 신혼부부였던 셈이다.



시몬스 침대 뷰티레스트 블랙.

시몬스 갤러리 서울 논현점 조현정 슬립마스터는 “봄 웨딩 시즌을 앞두고 뷰티레스트 블랙을 찾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프리미엄 혼수에 대한 니즈가 맞물리면서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뷰티레스트 블랙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한국 시몬스 고유의 매트리스 설계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 최고급 소재를 결합해 선보인 프리미엄 침대로 꼽힌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브랜드 원칙을 기반으로 수면 전문 브랜드의 본질인 최상의 수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2년 전 탄생했다. 뷰티레스트 블랙 전용 포스코사의 삼중 나선 구조 하이카본 스프링 강선으로 만들어진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은 섬세하고도 세련된 지지력을 구현한다. 또 신체의 무게 중심과 곡선을 최적으로 지지하는 ‘조닝’ 시스템, 50여종의 프리미엄 내장재를 이상적으로 조합한 ‘레이어링’ 기술도 더해졌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오는 3월 25일 까지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 및 온라인몰에서 ‘웨딩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디자인·안전·편의성 UP... ‘뉴 푸조 308’

푸조의 공식 수입원인 한볼모터스가 프리미엄 해치백 푸조 308의 부분 변경 모델인 ‘뉴 푸조 308’을 출시한다.

7일 한볼모터스에 따르면 뉴 푸조 308은 지난 2014년 6월 국내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스포티한 디자인 변화와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탑재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뉴 푸조 308은 알티르와 GT라인, GT, SW 등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전면부는 뉴 푸조 3008 SUV

부터 시작된 크롬 소재의 입체적인 프론트 그릴을 적용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가격은 알티르 3190만원, GT라인 3450만원, SW 3490만원, GT 39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정밀도·강성 높은 범용 공작기계 대거 출시

현대위아 신제품 13종 선보

현대위아가 새해를 맞아 공작기계 신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위아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종의 공작기계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수직형 머시닝센터(KF-B시리즈) 5종과 수평형 선반(HD시리즈) 8종 등 총 13종이다. 이들 기종은 시장 수요가 매우 높은 범용기종이다.

현대위아는 범용 공작기계 시장에 강성과 정밀도를 크게 높인 신제품을 대규모로 투입,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공격적

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F-B시리즈 중 KF790BM과 KF960BM은 중대형 금형가공에 특화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매끈한 금형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정밀도를 크게 높였다.

범용 머시닝센터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하는 KF5700B, KF6700B, KF7700B 역시 높은 가공 안정성이 특징이다. 가공을 진행하는 주축의 모터와 스핀들을 직결로 연결해 소음과 진동 발열을 최소화했다.

HD시리즈는 중절사용 CNC선반 HD2600과 HD3100으로 나눠 출시한다. 여기에 각 기종 별로 가공물을 올리는 베드



의 크기와 공구대의 특성에 따라 최대 8종으로 구성, 고객의 선택폭을 대폭 넓혔다. 현대위아는 HD시리즈를 찾는 고객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깎는 ‘중절삭’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해 강성을 극대화해 만들었다. 최첨단 구조해석 기법을 적용해 경쟁사 대비 1t 이상 장비의 중량을 올려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열변위는 최소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대출자 설곳 잃어

“私債로 내몰린 대출자, ‘안전망대출’로 갈아타세요”

만기연장 등 어려운 차주 대상
대출채무 최대 2000만원 대한

6개월마다 최대 1%p 금리 혜택
성실 상환엔 최대 12%p 인하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라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연 금리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을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이하 전 대부업·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졌거

단계	신청자 조치사항	세부내용
신청접수	전화상담(권장)	▶ 1397(서민금융 통합콜센터) 사전 문의 권장 ▶ 접수처 방문: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전국 13개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접수	보증확인서 수령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심사 통과시 보증서 발급
신청접수	은행 창구 방문 및 대출	▶ 신청서 제출시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안전망 대출 실행

자료/ 금융위원회

나, 고금리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 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

를 대환한다.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다. 다만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24%로 대출받은 차주도 2년 이상

성실상환 하면 20% 이하 중금리대 대출로 진입하고 최대 1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되며,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조원 공급된다. 당국은 향후 자금 수요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공급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신청은 전국 15개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한다.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 대출이 가능하면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다.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보증서의 효력기간

인 30일 이내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특히 대출 연체 차주, 채무불이행 차주, 회생·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기초생활수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자금여로를 최대한 열어줄 것”이라며 “이 제도는 대면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안전망 대출 신청 시 가급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신한금융, 당기순익 2.9조... 전년비 5.2%↑

신한금융지주, 2017 실적 발표

4분기 당기순익 전분기보다 74% ↓
이자이익 7.8조... 4년 연속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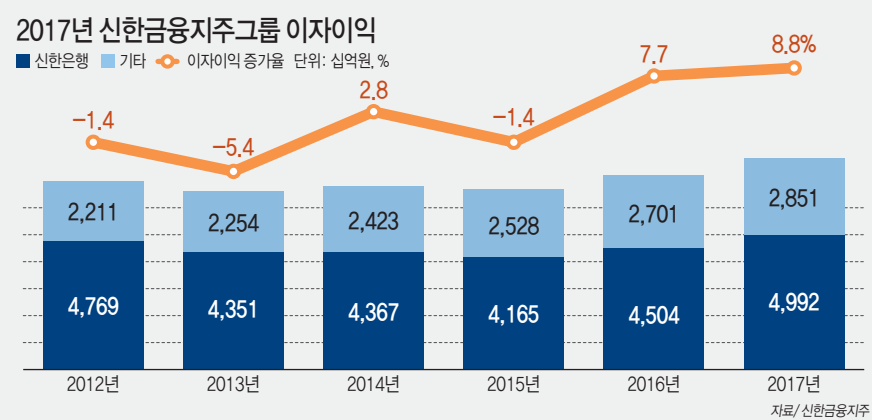
신한금융지주가 업계의 예상과 달리 순익 ‘3조 클럽’ 입성을 아쉽게 놓쳤다. 그러나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신한금융은 7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그룹 순이익이 전년 대비 5.2%(1431억원) 증가한 2조917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74.1% 감소한 2115억원을 기록했다. 대규모 연말 희망퇴직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추가 총당금 적립 등 일회성비용의 영향이다.

안정적인 자산 성장과 순이자마진(NIM)이 지속 개선되면서 은행 부분의 이자이익이 증가했다. 그룹 이자이익은 7조 8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4분기 연속 그룹 이자이익이 성장했다.

4분기 은행의 NIM은 수익성 기반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운용을



통해 전분기 대비 2bp(1bp=0.01%포인트) 개선된 1.58%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7bp 상승한 1.56%다. 신한금융투자,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 그룹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3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다.

그룹 비이자 부문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수료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문과 펀드·뱅크 부문에서의 팔목활만한 성장으로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는 등 다방면의 실적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 핵심시장에서 수

익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 결과 은행 글로벌 영업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8%(553억원) 증가한 2350억원을 나타냈다.

그룹 및 은행의 고정이여신에 대한 부실채권(NPL)비율은 각각 0.62%, 0.5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NPL커버리지비율 역시 보수적인 총당금 정책 지속으로 132.5%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및 카드의 연체율 또한 0.23%, 1.27%로 전년 대비 각각 5bp, 16bp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채신화 기자

소상공인·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KEB하나은행, 행복나눔 프로그램

KEB하나은행은 8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일자리창출의 생산적 기업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전담지원팀 신설 및 전 영업점 상담 데스크 운영 ▲세무·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으로 ‘최저임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4대 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각종 은행 이용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지원팀 신설은 물론 전 영업점에 상담 안내 데스크를 운영,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노무·회계 전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호 기자 kmh@

BNK부산은행, 연 6% 부동산펀드 판매

이익금 3개월마다 연결계좌로 지급

BNK부산은행은 평균 연 6% 수준의 ‘파인아시아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재간접)’ 펀드를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강릉 힐플러스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로 BNK부산은행이 BNK투자증권과 협업해 전년도 출시한 서울 상당 힐플러스(남현점) 투자 펀드에 이은 두 번째 상품이다.

힐플러스 강릉점은 강릉시 내 중심상업지구인 금학동과 옥천오거리에 인접해 유동인구, 입지여건 등 고려 시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향후 펀드 매각시점인 3년 뒤에는 14년의 책임임차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각주인이 가능해 매각에 대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파인아시아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재간접)’는 선취판매수수료는 1.0%, 총보수는 연 0.44% 수준이다. 매 3개월마다 펀드의 이익금이 연결계좌로 지급되며 펀드 만기일까지 중도환매는 불가하다.



BNK부산은행 본점.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김정훈 WM사업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펀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열사인 BNK투자증권과 함께 우량한 투자상품을 발굴해 고객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빗썸, 거래기능 개선... 모바일 서비스 개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모바일 거래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환경과 차트 등 거래 기능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튜토리얼(안내) 페이지에서는 달라진 모바일 서비스 사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또 거래소 이용이 처음인 회원들을 위해 ‘매수·매도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뉴 바도 개선됐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빗썸캐시 정보를 메뉴 바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메뉴 바로가기 기능은 물론, 전체 메뉴 접근도 한층 쉬워졌다.

특히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 정보와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신속하게 매매



를 할 수 있도록 거래 화면을 대폭 개선했다. 매수·매도 주문량, 거래량, 거래대금, 당일 고가·저가 등 정보를 모두 한 화면에 담았다. 또 간편 매수, 현재가·시장이전 액 매도 등 매매 기능도 추가했다.

차트는 PC 버전에 이미 적용된 것과 같은 ‘트레이딩뷰’(TradingView) 기반의 6가지 차트와 60가지 보조지표를 제공

초보회원 위한 ‘연습하기’ 서비스
거래정보 신속파악위한 화면 개선

한다. 실시간 데이터 반영 주기를 기존 10분에 1회에서 약 1~2초에 1회로 크게 단축했으며, 차트 데이터 축적도 기존 최대 10분에서 1분으로 줄였다.

빗썸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 개편을 통해 거래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과감하게 빼고, 필요한 정보들만 한 화면에 통합적으로 담아 거래자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빗썸 모바일 앱은 지난달 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금융 카테고리 인기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빗썸의 모바일 앱 사용자 수는 지난해 9월 6860명에서 10월 9만5000명, 11월 30만2000명, 12월 146만7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1@

중권 다이제스트



KB증권 ELS·DLS 등 11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9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HSCEI·Eurostoxx50)으로 연 4.45%(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380호(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 등 주가연계증권(ELS) 8종, 파생결합증권(DLS) 3종 등 총 11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Nikkei225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able ELS 380호(3인덱스 챔피언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4.45%(세전, 챔피언 조기상환 시 연 6.675%)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스톡기프트' 오픈 기념 주식 선물 이벤트 진행

신한금융투자는 주식, ETF를 기프티콘처럼 쉽게 선물할 수 있는 '스톡기프트'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이용 고객들에게 ETF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3월 30일까지 진행한다. 7일 밝혔다.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 '기프티콘 대신 주식! 주식 선물하고 나도 받고!'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스톡기프트' 서비스를 통해 주식 또는 ETF를 선물하는 고객들에게 KODEX200 ETF를 추첨으로 제공하고, 이용 고객 모두에게 TIGER 원유선물 ETF 1주를 지급한다.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5월까지 해외투자 이벤트

NH투자증권은 오는 5월 31일까지 해외펀드 및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표적 이벤트는 해외상품 가입 이벤트이다. 이벤트 기간 중 5000만원 이상 추천 해외펀드를 가입하거나 해외주식을 매매하면 백화점 상품권(3만원권)을 제공한다. 추천해외펀드는 NH투자증권이 수익성, 안정성, 운용역량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해 상위등급을 분류하고, 그 중 리서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시장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펀드를 최종 선정한다.

/김문호 기자

정지원 “코스닥, 모험자본의 산실로 재도약”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2018 한국거래소 운영방향 발표 KRX 지주사 전환 재추진 가능성 실적-성장잠재력 상장요건 개편

국내 주식시장의 정규장 개시 전 호가 접수 시간이 올해 하반기 중 30분 가량 단축된다. 또 지난해 무산된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전환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한국거래소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시가 단일가 매매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는 정규장 개장 전 1시간 동안 호가를 받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는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오전 8시 30분~9시나 오전 8시 50분~9시 등 30분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장 개시 전에 전일 증가로 매매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취임 100일 기념간담회를 갖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체결하는 '시간외종가 매매'는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과 겹치지 않게 하면서 역시 운영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30분 가량 줄일 계획이다.

이런 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정규장 개장 전 주문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 줄어들 것이다.

거래소는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이 해외에 비해 길어 호가 집적도가 떨어지고 체결 예상가와 당일 시가 간에 상당한 가격 차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시장 운영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이 독일이나 영국은 10분이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30분이다.

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된 뒤 테스트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하는 조치는 이달 중 정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3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넥스협회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을 받아 3월 중 선임할 계획이다. 코스닥본부에는 상장심사, 공시 등 4개 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2013년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위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고 본부장은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혁신 모험자

본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추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이 모험자본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상장 요건도 손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적 중심에서 성장 잠재력(시가총액, 자기자본 등)을 중심으로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재편키로 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상장심사도 다양화한다. 이에 약 2800개사가 추가로 상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전환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지주회사 전환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만큼 아직까지 유효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와 관련, "젊은 2030 세대가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30 세대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똑똑한 세종시 만드는 'LH'

LH,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실시 민간참여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4차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활용

LH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LH는 6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H-민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개발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LH가 개발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274만1000㎡)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발표한다.

LH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골격을 만든 후 민간참여를 위한 규제 해소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대폭 수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시범도시가 들어서는 세종시 5-1생활권은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드론, BIM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안전, 보건, 행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적극 도입한다. 또한 도시 빅데이터(Big-Data) 구축·활용을 통한 시간·에너지·자원 효율을 높인다.

이날 회의는 스마트시티를 주도해 나갈 14개 분야 80개 민간업체, 23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사업계획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산업"이라며 "LH와 민간의 협업개발이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이므로 다양한 업체들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단순한 주거위주의 신도시 건설이 아닌,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핵심 전략과제임을 감안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는 3월 중으로 'LH-민간 협의체'를 발족,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요구사항을 평택고덕·위례 등 5개 특화단지과 성남고동·고양동지구 등에 반영·검증해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도입할 예정이다.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조감도. /GS건설

GS글로벌 컨소시엄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시행자로 선정

GS건설이 참여한 GS글로벌 컨소시엄이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로 7일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며 GS글로벌 컨소시엄의 참여사 비율은 각각 GS글로벌 40%, GS이엔엘 40%, GS건설 10%, 쌍용로지스틱스 10%이며, 시공 대표사는 GS건설이다.

강원 동해시 구호동 동해지구 전면해상에 10만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석탄부두 1선석(L=330m), 관리부두(L=256m) 및 배후부지 약 11.2만㎡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상사업비는 2740억원,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 후 국가에 귀속되며, 총 사업비 만큼 부두를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해항에 운영 중인 석탄부두의 하역능력은 연간 361만t 규모다. 그러나 석탄물동량의 꾸준한 증가, 2020년 이후 동해항에서 처리해야 할 석탄물동량은 연간 약 9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가 건설되면 동해항은 추가로 연간 540만t 이상의 석탄 물동량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GS글로벌 컨소시엄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양질의 민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중이며, 이번 사업이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됐다"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글로벌 투자 전문가 키운다... 中 알리바바 탐방

미래에셋대우 WM직원 30명 참가 올해 200여 명 전문가 양성 계획

미래에셋대우는 2월 초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박 5일간의 해외기업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WM직원 30명이 참석했으며,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기업문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오프라인·물류'가 결합된 신유통의 미래, 클라우드 빅 데이터 플랫폼 등 4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학습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선진 해외기업 탐방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분기마다 개최되는 글로벌주식포럼을 통해 영업직원들에게 글로벌 시장과 분기별 추천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해외 연수에 참여한 WM직원들이 알리바바 빈저 캠퍼스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해외 연수에 참석했던 이주일 청주WM 선임매니저는 "리포트나 포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탐방을 통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와 같은 연수 과정이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연말까지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정유인 미래에셋대우 인재개발본부장은 "미래에셋대우가 고객에 대한 신뢰를

실천하는 길은 전문 인력을 꾸준히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의 해외주식자산은 지난 1월 26일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 초 1조 1534억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 전문인력 육성, 양질의 해외주식투자 콘텐츠 제공,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해외주식자산 증대에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김문호 기자

모바일의 힘!... 패션도 온라인이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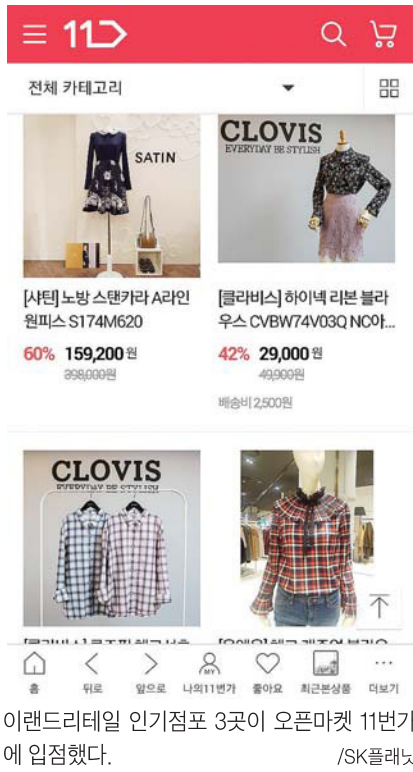
인터넷 패션소비 비중 극대화
퀵배송·전용 상품·편의성 등
업계 '온라인 몰' 키우기 한창

발품을 팔아 직접 쇼핑에 나서지 않아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패션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업계에서도 온라인몰 키우기에 적극 나섰다.

7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누적 기준으로 온라인 패션시장 규모는 9조3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 가까이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도 온라인 쇼핑 비중은 2015년 14.6%에서 2016년 17%, 2017년 19.2%로 각각 늘었다. 올해는 20%대로 예상된다.

온라인 패션 소비가 늘어나자 업계에서도 온라인 사업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인기 점포 3곳(NC백화점 불광점 및 서면



이랜드리테일 인기점포 3곳이 오픈마켓 11번가에 입점했다. /SK플래닛

점·2017아울렛 중계점)을 오픈마켓 11번가에 입점시켰다.

또 11번가는 올해 전국 주요상권에 위

치한 오프라인 기반 400여 개의 로드샵을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 '로드#(샵)'을 구현했다.

실제로 매장 쇼윈도우를 보듯 매장의 주력 상품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으며 해시태그(#) 기반 큐레이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로드샵에서 판매 중인 비슷한 디자인의 상품을 한눈에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1번가 패션 거래액은 2016년 대비 25% 증가, 패션 카테고리는 해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11번가는 자본력이 약하고 온라인에 낮은 패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패션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 환경이 한층 개선됐기 때문이다. 발품 팔아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매장에 전시 중인 상품을 마네킹 착장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디자인, 크기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온라인 패션 소비가 극대화되자 대형 패션기업들도 자사 온라인몰 키우기에 한창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통합 온라인몰 SSF샵은 지난해 '온라인 전용 상품'을 내놓으며 2030세대 여성들의 소비를 한층 높였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출시한 빈폴아웃도어의 슈퍼다운은 90% 이상의 판매율을 보이며 두세 차례 리오더를 기록했다.

또 SSF는 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경험과 구매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고가 브랜드들의 입점을 진행, 고객 유입율을 높였다. 이 외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문 후 3~5시간내 배송하는 퀵배송 서비스까지 진행하며 온라인 비즈니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전문기업한섬은 자사 온라인몰 '더한섬닷컴'에서 구매하기 전 원하는 옷을 소비자가 직접 집에서 입어볼 수 있는 홈 피팅 서비스인 '엣 홈(at HOME)'을 내놨다.

한섬 VIP 회원과 온라인몰 우수 회원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마포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BGF리테일 "CU에서 그린카 카셰어링"

렌터카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CU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BGF리테일은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BGF리테일은 전국 1만 2000여 개 CU(씨유) 인프라를 활용해 그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CU는 오는 8일부터 20여 곳 CU에 'CU 그린존'을 마련하고 약 30대의 그린카를 배치한다. 고객들은 그린카 앱(App)을 통해 이용 시간 및 대여 희망 점포를 설정하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U 그린카'는 고객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BGF리테일은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와 제휴를 맺고 점포 인프라를 활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달 기준 약 40여 개 점포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신세계백화점

개점시간 오전 11시로 연기
영등포·경기·광주점 시범운영

신세계백화점이 다음 달부터 영등포·경기·광주점 등 3곳의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춘다. 폐점 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8시다. 식품관은 종전대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운영한다.

7일 신세계 관계자는 "협력회사 사원에게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워라밸 실현 기회 제공하고자 개점시간을 30분 늦추는 시범 운영한다"며 "협력회사, 협력사원,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협력사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동시에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영등포점, 경기점, 광주점 총 3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겨울 필수템 목도리·장갑, 오래 사용하려면?

애경 '방한용품 관리 팁' 소개

미온수에 중성세제로 손빨래 세탁기엔 망에 넣고 울코스로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는 목도리와 장갑은 주기적인 세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 세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

생활뷰티기업 애경은 겨울 내내 사용하는 방한용품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탁·관리해야한다고 7일 소개했다.

우선 소재 특성상 면지가 달라 불기쉬운 니트 소재는 옷솔을 이용해 면지를 정기적으로 쓸어내고 세탁 해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세탁 시에는 목도리를 두드려 면지를 털어내고 20~30도 미온수에 중성세제를 풀어 20~30분 정도 담가 두고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세탁하면 오



목도리와 장갑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탁해야 한다. /애경

염 제거에 효과적이다. 세탁 마무리 단계에서는 행굼을 여러 번 반복해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른 수건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한 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펼쳐서 말려주면 된다.

세탁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목도리를 등골계 말아 울이 나간 스타킹이나 세탁망에 넣고 울코스로 세탁하면 된다.

보관할 시에는 동그랗게 말아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습자지나 신문지를 목도리 사이에 끼워 보관하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

장갑은 세탁 전에 먼저 뒤집어 손가락과 닿는 부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털장갑은 미온수에 중성세제를 풀어 부드럽게 문질러 세탁하고 세탁 후에는 장갑을 바닥에 펼쳐 건조시켜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세탁이 까다로운 가죽장갑은 가죽 전용클리너를 이용해 겉면을 닦아주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장갑내부는 뒤집어 먼지를 털어낸 후 사용하는 게 좋다. 가죽장갑은 통기성이 좋은 곳에 보관해야 곰팡이에 의한 가죽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롯데하이마트 최강 한파에도 에어컨 판매 급증

지난해 동기 대비 40% 늘어

연일 계속된 한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판매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기록적인 추위와 무더위를 번갈아 겪은 소비자들이 올 여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에어컨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1월1일부터 2월 6일까지) 판매된 에어컨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사계절 이어지는 미세먼지가 에어컨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 들어 판매된 에어컨 중 공기청정기능을 탑재하고 한국공기청정협회(CAC) 인증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량 늘었다. 전체 에어컨 매출액 내 비중도 2배 이상 늘었다.

또 에어컨 제조사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능 등을 강화한 2018년형 신제품을 발표하고 1월 중순부터 차례로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하이마트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에어컨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서강우 롯데하이마트 가전팀장은 "지난해 무더위를 경험한 고객들이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파를 뚫고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며 "연초 예약판매 시기에 미리 에어컨을 구매하면 사은품이나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뿐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설 선물, 델몬트주스로 실속있게 준비"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가 설 명절을 맞아 '델몬트주스 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국내 1등 주스 브랜드 '델몬트' 제품 중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 위주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 실속있는 소비성향을 반영해 8000원부터 1만4000원 사이의 가격대로 구성된 총 7종의 중저가 세트다.

델몬트트루주스 제주감귤 선물세트는 건강한 주스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실량과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고 과일 자체의 천연당으로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제품으로 구성됐다. 제주감귤만을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낸 '제주감귤듬뿍 3본입 세트' 1종이다.

델몬트 페트 선물세트는 1.5L 용량 제품으로 행복(幸福)과 애정(愛精)이라는 한자 속에 담스러운 과일의 이미지를 담아 신선함과 풍성함을 더한 포장재로 꾸며



다. 행복 선물세트는 '오렌지·포도·망고·토마토 4본입 세트', 애정 선물세트는 '포도·매실·제주감귤 4본입 세트'로 총 2종이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 주스 제품을 180ml 용량 병에 12개씩 담은 '오렌지·포도 소병 세트', '망고·토마토·매실·알로에 소병 세트', '포도·매실·감귤·알로에 소병 세트', '사과·매실·감귤·토마토 소병 세트' 등 총 4종으로 선보였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부담없는 중저가형 '델몬트 주스 선물세트'로 가족 건강까지 함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농심 '이탈리아 감성'

수미칩 바질페스토 선포

농심은 이탈리아 대표 소스 바질페스토의 풍미가 어우러진 '수미칩 바질페스토'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바질페스토는 바질과 올리브유, 치즈, 마늘, 잣 등을 함께 쥘어 만든 이탈리아 소스로 파스타나 피자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미칩은 365일 국산감자만 사용하는 국내 유일의 감자칩이다.

/박인용 기자

맥도날드 '올림픽기념 3종 메뉴'

평창 골든포테이토버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파트너인 맥도날드는 골든 포테이토 버거, 골든 포테이토 베이컨 머핀, 골든 포테이토 토마토 머핀 등 올림픽 기념 메뉴 3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평창의 자연을 담은 감자와 설원처럼 하얀 체다 치즈, 송이버섯 소스가 어우러져 풍성한 맛과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한다.

/박인용 기자

‘미투’ 비웃는 ‘여혐’, 소수자 억압의 결과 “응원 절실”

김치녀·한남충 등 온라인 혐오표현 늘어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 향한 적대성 표출
‘여성도 남성 혐오’ 등 논점 흐려선 안돼

일부 남성들이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에 여성 혐오 표현으로 맞서 논점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선 혐오 표현이 소수자 억압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다른 소수자도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혐오 표현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대표적인 표현이 ‘김치녀(권리와 책임 앞에 이중적인 여성)’와 ‘한남충(매력 없는 한국 남자+벌레)’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비하하는 데 쓰인다. 이 때문에 ‘여성도 똑같이 남성을 혐오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

◆혐오표현은 욕설 아닌 억압

문제는 온라인에서 쉽게 오가는 혐오 표현이 결코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을 향한 혐오 표현의 경우 구조적인 억압을 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숙명여대와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혐오 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행을 폭로한 다음날 한 블로거는 “서지현은 O녀이고 매력도 없는 여자다. 아무리 O녀라도 OO를 풀어내면 매력적”이라며 성추행을 정당화 하는듯한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7일까지 174명의 공감을 받았다. 해당 글을 발견한 박모(34)씨는 “말을 가진 아버지서 놀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이웃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싹하다”며 눈썹을 찌푸렸다. 같은 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물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혐오표현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기능’이 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체 없는 ‘남혐’…소수자 응원해야

이 때문에 남녀가 주고받는 혐오 표현에서 진정한 의미의 ‘남혐’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성 비하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여성이 구조적으로 겪는 성폭력 문제와 대등하게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교수인 황명진 공공사회학회 부회장은 “(미투가) 제도적인 각성으로 소수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특정 누리집에서 여혐 표현에 동조하는 남성이 은근히 늘고 있다.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가 세력을 넓히는 일종의 ‘전선(戰線)’인 셈”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도 남성을 혐오한다’는 식으로 미투 운동의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미투는 외국인을 포함한 노동 약자 등 다른 소수자들도 목소리를 낼 기점이 될 수 있다”며 “나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한다는 분위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소수자 혐오를 넘어 진지한 사회적 고민을 하기 위한 기점으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임진왜란 전 ‘경복궁도’ 복원 족자 공개 ‘서초역-내방역’ 車·보행자 터널 내년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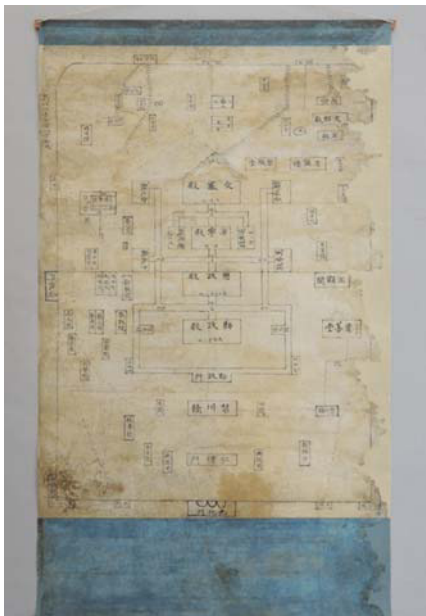
문소전 등 조선전기 궁궐 모습 담겨

서울역사박물관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이전 경복궁 내 건물(전각)들의 배치 모습을 그린 ‘경복궁도’ 족자를 원형 복원해 7일 공개했다.

경복궁도(족자 : 세로127.6cm,가로 71.3cm, 그림 : 세로 102.7cm, 가로 71.3cm)에는 국내·외에 알려진 10여 점의 경복궁도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시대 ‘족자’ 형태 그대로 보존돼 있다. 문소전이나 총순당 같이 지금은 볼 수 없는 조선 전기 궁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바탕 재질은 종이로 구성되었고, 족색 종이로 장식해 상·하축을 달아 제작한 족자 형태의 필사본 고지도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16년 경복궁도를 공개구입하고 약 1년 간에 걸친 보존처리를 마쳤다. 박물관은 임진왜란 이전 궁궐에 관한 기록과 그림이 드문 오늘날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복궁은 조선 개국 직후인 1395년 창건되어 약 200년 간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법궁으로 자리매김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완전히 불에 타 폐허가 된 이후, 역대 왕들은 창덕궁과 경희궁에 거처했다. 경복궁 중건은 고종이 즉위한 이후인 270년 만에 진행됐다.

박물관은 경복궁도가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을 고증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



보존처리된 경복궁도. /서울역사박물관

한다. 경복궁도에는 1770년 영조가 세운 ‘친잠비’가 표시되어 있다. 고종의 경복궁 중건 이후 새로 세워진 수정전, 집옥재 등은 빠져 있는 점을 볼 때, 제작시기는 18세기 말~19세기 후반 사이로 보인다.

친잠비는 영조 43년(1767년)에 왕비가 경복궁 안에 친히 누에를 쳐 채상례를 행하고 ‘정해친잠’이라 이름 지었다. 영조 46년(1770년)에 임금이 ‘정해친잠’ 4글자를 직접 쓰고 해당관청에서 돌에 새겨 제작한 비다. /이법종 기자

강남역까지 출퇴근시간 20분 단축

서울시는 서초대로 서초역~내방역 구간을 잇는 터널을 이달 말 관통한다고 7일 밝혔다. 개통은 오는 2019년 2월이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수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서초대로는 서초동 서리풀공원 내 군부대로 인해 길 중간이 끊겨있다. 이 때문에 강남의 동·서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남부순환로, 사평로, 방배로, 효령로, 반포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만 했다. 이번 터널 관통은 착공 2년 4개월에 진행됐다.

터널 내부는 왕복 6차로와 폭 2.4m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된다. 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차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구분하는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먼연과 미세먼지 차단 물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에서 방배동 내방



서초역~내방역 구간 연결 터널. /서울시

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80m으로 터널 구간 360m, 옹벽구간 150m, 나머지 기존 도로 정비구간 770m이다. 왕복 6~8차로로 확장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초역~내방역 터널이 개통되면 내방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 이상 단축된다”며 “만성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터널 관통시기에 맞춰 8일 오후 4시 터널공사현장에서 인근 주민 200여명을 초대해 공사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가진다. /이법종 기자

테니스 ‘정현’ 선수 건국대병원서 정밀검진

세계 4대 그랜드 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4강에 올라 화제를 모은 정현 선수가 건국대병원을 찾았다.

정현 선수(29위, 삼성증권후원)는 정형외과 정홍근 교수와 김진구 교수, 정석원 교수와 성형외과 최현곤 교수, 피부과 이양원 교수의 협진으로 부상 부위인 발바닥을 비롯해 부상 방지를 위한 종합 정밀 검사를 받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정현 선수는 16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 선수와의 경기에서 발바닥 부상이 심해져 8강전부터 진통제 주사를 맞고 출전했으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선수와의 4강전에서 심각한 발바닥 부상으로 경기를 중단했다.

정현 선수와 건국대병원과의 인연도 주목을 받았다. 정현의 어머니인 김영미 씨는 건국대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했고, 아버지 정석진 씨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다. 또 형인 정홍 씨도 건국대학교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40℃~100℃ 8단계 온도조절... 100℃로 끓인 ‘안심수’도

교원웰스 ‘웰스 포트 100℃ 정수기’

교원 웰스는 100℃까지 물을 끓이고 온도와 출수량을 각 8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웰스 포트 100℃ 정수기’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정수기와 포트 결합한 것으로 온수 사용 시 필요한 양만큼 물이 포트에 유입되고 교원웰스의 특허기술인 ‘자동가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가열되는 게 특징이다. 한번의 출수 버튼으로 가열까지 자동 진행해 편리하며, 온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대기전력이 없어 전기가 부담도 적다.

특히 업계 최초로 채택한 ‘베이비 안심수’ 기능은 필터로 정수된 깨끗한 물을 100℃까지 다시 한번 끓여줌으로써 어린

아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이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사용 용도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40℃부터 100℃까지 총 8단계로 고객이 원하는 온도로 맞춤 설정도 가능하다.

온수 온도는 아기 연령이나 분유 종류에 따라 알맞은 온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40℃, 50℃, 70℃로 세분화했으며 차나 커피도 티백·분말 등 투입에 따라 최적의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 80℃, 85℃, 90℃, 95℃로 나뉘었다.

요리나 라면을 끓이기에 안심맞춤인 100℃도 가능하다.

출수량도 8단계로 조절 가능해 사용 목적에 맞춰 물 양 고민 없이 간편

하게 선택해 편리하고, 불필요한 물 낭비를 줄여준다. 월 렌탈가격은 월 3만5900원(3년 약정 시)이다. /김승호 기자 bada@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감/언/론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27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200여개



사진기사. 1200~1500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협력사 100곳과 동반성장 협약

‘2018 이노패밀리 상생데이’ 개최

LG이노텍이 지난 6일 ‘2018 이노패밀리 상생데이’를 개최하고 100여 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시작돼 매년 열리는 이노패밀리 상생데이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2018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과 함께 우수 협력사례 발표, 구매 및 품질 정책 공유, 경제동향 특강 등을 마련해 LG이노텍과 협력사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동반성장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협력사의 본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기술, 경영, 교육 분야 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LG이노텍은 올해 63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한다. 이 펀



‘2018 이노패밀리 상생데이’에서 박종석 LG이노텍 사장(앞줄 가운데) 등 LG이노텍 관계자와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이노텍

드를 활용하면 협력사는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 펀드로 매년 40여 개 협력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LG이노텍은 올해 22개 협력사 경영 컨설팅을 한다. 지난 6년간 약 100개 회사

가 경영 컨설팅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 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CSR 컨설팅은 글로벌 기업들의 높은 CSR 요구 수준을 고려해 18개 협력사에서 올해 40개사로 확대한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지난 6일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 안윤환 장학재단 이사장(왼쪽부터), 나동연 양산시장,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 양산 공장장 이리나 아슈키나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억 기부

한국필립모리스가 양산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6일 경남 양산 시청에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설립 이래 저소득가정 학생들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 기회 제공,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기능, 체육, 예능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기부한 금액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양산 지역 중·고등학생 및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이 장학금이 양산시 학생들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002년 양산시 유산동에 첫 국내 생산공장을 설립한 이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2년에는 약 2000억원의 투자로 기존 생산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한 신공장을 완공해 고용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9년까지 총 4억2000만달러(약 4600억원)를 투자하고 700여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현 양산공장을 증축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지난 6일 진행된 한국당뇨협회 공식 후원사 협약 갱신식에서 한국허벌라이프 정영희 대표(왼쪽)와 한국당뇨협회 박성우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 3년연속 한국당뇨협회 공식 후원

한국허벌라이프가 한국당뇨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3년 연속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한국당뇨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1995년 설립된 후 3만5000여명의 회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당뇨 관련 교육 및 홍보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벌라이프는 지난 6일 한국허벌라이프 본사에서 열린 한국당뇨협회 공식 후원사 협약 갱신식에서 당뇨 예방 및 홍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당뇨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최초의 기업인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당뇨협회를 3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정영희 한국허벌라이프 대표이사는 “당뇨병 예방과 개선에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 등이 중요한 만큼, 허벌라이프의 전문 분야인 균형 잡힌 뉴트리션을 통한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신점[神占] 운세 2월 8일 (음 12월 2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마음 태우지 마세요. 72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84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세요. 96년생 술집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 소** 61년생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73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세요. 85년생 길한 하루이니 희망을 가지세요. 97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 호랑이** 50년생 험난하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4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됩니다. 86년생 근심걱정이 한번에 사라집니다.
- 토끼** 51년생 고난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63년생 의연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75년생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를 피하세요. 87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 뱀** 52년생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64년생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운입니다. 76년생 뜻밖에 재물을 얻게 됩니다. 88년생 대체적으로 무난할 것입니다.
- 뱀** 53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65년생 원통할 일을 경황하게 됩니다. 77년생 귀하를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89년생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 말** 54년생 자신의 뜻이 굳고 변함이 없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66년생 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8년생 휴식이 필요합니다. 90년생 상하가 합동해 큰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 양** 55년생 고기와 용이 물을 얻으니 의기가 양양합니다. 67년생 재물도 있고 토지도 있으니 하는 일마다 좋습니다. 79년생 아무 일이나 손 대지 마세요. 91년생 자금지전이 막히게 됩니다.
- 원숭이** 56년생 하는 일마다 길하니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68년생 이로움이 아주 많습니다. 80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게 됩니다. 92년생 재물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 닭** 57년생 장래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9년생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81년생 서두른다고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93년생 애정운이 갑니다.
- 개** 58년생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습니다. 70년생 주위 여건이 귀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82년생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94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시간낭비입니다.
- 돼지** 59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습니다. 71년생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습니다. 83년생 재물이 잠시 막힙니다. 95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9	2		8	7		
	5						1	
4	7			1			8	2
5		4		8		1		9
			5		9			
9		3		7		8		5
8	1			6			9	7
	9						3	
		5	7		1	2		

5	3	8					1	4	6
	7	1	8			3	9	5	
9				6		4			1
					7		2		
3				1		5			8
	4	2	9		8	6	3		
6	8	5					2	1	9

스도쿠 정답

8	9	2	1	6	7	5	4	3
1	5	7	3	5	8	4	6	9
4	6	5	8	9	4	2	1	8
5	2	8	7	1	6	9	3	6
6	7	9	6	2	5	1	8	4
6	4	1	9	8	6	7	2	5
2	8	5	1	6	9	4	7	3
7	1	6	2	8	5	9	3	7
9	5	4	8	7	2	6	1	5
4	8	7	9	2	5	6	1	3
6	1	2	4	7	5	8	9	6
5	9	8	1	6	2	4	7	3
8	9	1	5	6	1	4	7	2
7	6	5	2	8	4	9	1	8
1	2	8	7	8	9	4	5	6
2	5	6	9	8	1	4	7	3
9	4	1	6	4	2	8	5	7
6	4	8	1	5	7	6	9	2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기도의 가피도 인연따라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절 월광사에서 일 년에 몇 번 철야기도를 하는 적이 있다. 신도님이 참석하면 참석하는 대로 아니면 필자 혼자서 조용히 촛불을 키고 향을 사투어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데, 신도분들께 기도라는 명목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공덕과 가피라는 것도 다 인연 따라 가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경술기도 때의 일이다. 필자와 인연을 맺은 지는 한 이 년쯤 되는데, 상담 후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일요법회에 서너 번은 참석했던 분이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이 경술기도일에 나타난 것이다. 작년 하반기 법회에서 필자가 2017 정유년 음력 10월이 들어선 후의 경술기도는 대인관계에 장애가 많은 분들은 참석하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기도 때는 참석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매우 진지하게 기도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도가 끝난 후 차가 끊어지기 전에 간담며 자리를 뒀었는데 그 이후, 그는 계속해서 일요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몹시 힘든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경술기도에 참석한 후 신기하게도 해결이 되었다 한다. 일 년 전, 새로 부임해온 지점장과 너무나 맞지 않아서 퇴짜까지도 고민했던 것인데 경술기도 후 예정에도 없던 인사발령이 있었다. 그렇게도 본인을 포함하여 주변사람을 괴롭히던 지점장이 좌천되어 지방 지점으로 전근되었다는 것이다.

그 지점장은 새로 발령이 내려면 최소 1~2년은 더 있어야 했다. 승진도 확실시되는 경우라서 자신의 향후 직장생활은 비전이 있을 것이었는데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일이 틀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사이가 좋지 않은 지점장과 아삼육이던 부행정급 임원의 비리문제가 적발되면서 부행장은 옷을 벗었고 그 지점장은 좌천됐으니 앞으로 자신에게는 장애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심이 탈해졌다는 것이다. 어려웠던 자신은 풀려가지만 전도양양하던 상대가 생각지도 않게 일이 틀어지니 인생을 새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 역시 정도를 걷는 직장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평소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원장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한 하심을 닦겠다 한다. 이럴 때 필자가 느끼는 감사와 보람 역시 매우 크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기도의 힘을 믿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기차 공급량 늘려야



김필수의 차 이야기

새해 시작부터 전기차 물량이 벌써 동났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 확보 대수가 약 2만대 수준에 그치면서 1월도 채가기 전에 올해 확보된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수치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 4000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청한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 이었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올해 판매 될 전기자동차의 폭발적인 인기를 고려해 예상 보조금을 크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올해는 '전기차의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다. 한번 충전하여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보편적으로 300km 이상 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항상 불편하게 느끼는 충전소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단점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작년 중앙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더욱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보조금인 만큼 올해가 구입하기 최적이다. 또한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활성화나 정책, 기술적인 측면이 뒤지는 만큼 전기차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한국지엠의 쉐보레 볼트, 기아 니로 전기차, 닛산 신형 리프, BMW i3 등 더욱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로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선진국 중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라 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한 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작한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일반 전기자동차 보급보다 훨씬 늦게 이제 시작이고 중소기업의 먹거리인 만큼 보조금 유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넷째로 전기자동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합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자동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한화, 국립맹학교서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개최. 한화그룹은 7일 서울국립맹학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불꽃클래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불꽃클래스는 한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모두 하나 되어 만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하는 올림픽 홍보 프로그램이다. /한화그룹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 쌀 6000포대 기부

설 앞두고 소외계층 위해 나눔 펼쳐



에이스침대는 안유수 회장(사진)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에이스경암이 설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짜리 5942포를 경기 성남시와 이천시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기증한 백미는 성남시 관내 총 4492세대와 이천시 1450세대 등 총 5942 세대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1999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에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증해 왔다.

또, 지난 25년간 불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및 경로당도 운영하며 소외받고 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수소전기차 성공하려면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현대자동차그룹은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하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을 선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힘겨운 모습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수소차 투싼ix 35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18'에서 넥쏘의 차명과 제원, 주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의 넥쏘는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국내 시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수소차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선보였다. 이후 일본 도요타와 혼다 등이 개발에 성공하며 생산하고 있다. 단순히 생산 시점만 보더라도 현대차가 궁극적으로 친환경차·수소차 개발에서 앞서고 있다. 하지만 판매량을 보면 일본 도요타는 누적판매 4000대가 넘었다. 반면 현대차는 890여대에 불과하다.

도요타와 혼다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소차 보급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를 4만대로 늘리고 충전소 설치비용과 운영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9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충전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42개의 충전소를 가동 중인 독일은 2023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차 충전소

는 전국에 12곳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7곳 뿐이다. 지난달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충전소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수소차 분야는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자율주행 등 미래차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발표에서 수소차는 빠져 있다. 전기차 중심의 투자 계획만 내놓은 것이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위태로운 모습이다.

아직까지 수소차 경쟁력에서 현대차가 앞서고 있지만 주도권을 빼앗기는 건 한 순간이다. 도요타와 혼다의 경쟁, 중국과 독일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ysw@metroseoul.co.kr



귀뚜라미, 러 냉난방전시회 10년째 참가. 귀뚜라미는 오는 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 냉난방 설비 전시회 '아쿠아 섬 모스크바 2018'에 10년 연속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감축 노력과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대기오염 감축 효과가 우수한 주력제품 12종을 전시하고, 현지 거처 확보와 마케팅에 나선다. 지난해 참가 당시의 부스 전경. /귀뚜라미



DB손보, 베트남 자회사 PTI와 나눔봉사 실천. DB손해보험과 베트남 PTI 보험사 임직원, DB김준기문화재단 장학생 봉사단 '동해리' 봉사자들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베트남 북부 닌빈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DB손보가 7일 밝혔다. DB손보 봉사단원들이 베트남 현지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후 현지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보



메트라이프생명, 재무설계사 육성 강화.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영업 전략 중 하나인 조직 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재무설계사 육성 프로그램을 전격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신입 재무설계사가 일정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면 초기 2년간 월 소득을 300만원 보장해주는 루키(Rookie) 300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무설계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인사

◆**법제처** <전보 <과장급> △법제정책관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국장급>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대변인 윤수현 △기획조정관 김준하 △소비자정책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삼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배영수 <과장급>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한경중 △특수거래과장 이상협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오동욱

◆**문화재청** <전보 <과장급> △법무감사담당관 홍창남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임병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유재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장 이규식 △과견(국·과장급 교육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연수 △세종연구소 김성일 △통일교육원 임종덕

◆**주택금융공사** <전보 <지역본부장> △수도권본부 조현곤 △서남권 김현수 <부장> △기획조정실 조진호 △고객만족부 박종철 △준법지원부 광혜일 △정책모기지원 권오훈 △세무회계지원부 이영태 △주택연금부 장우철 △리스크관리부 이규진 △IT전략안전부 이철우 △정보전산부 양기범 △감사실 이진호 △인사부 최혁순 △경영지원부 채석 <지사장> △서울중부 오택근 △서울남부 임수현 △부산최상철 △광주 김익수 △대전 김영환 △울산 이휘 △경기중부 김동만 △천안 오상연 △순천 조생현 △경남 정훈모 △제주 조성국 △서울채권 정정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현희 △미술관장 윤동천

◆**명지대** △사무지원처장 방선오

◆**전자신문** <승진 <편집국> △ICT융합산업총괄

SW융합산업부 부장 신해권 <정보사업국> △사업팀 부장 김정영 <광고마케팅국> △마케팅팀 부장 한기웅 <모직 <편집국> △사진부 부장 윤성혁

◆**한국스포츠경제** △편집국엔터산업부장겸뉴미디어본부총괄부장 유아정 △뉴미디어본부디지탈뉴스부장 신화섭

부음

▲우민규(산림관리사)·상규(진주 이상약국 약사)·인규(전 경향신문 기자)씨 모친상 = 7일, 경북 진주 중앙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055-745-9555

▲정병임씨 별세. 백철현(현대해상 상무)씨 빙모상 =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3010-2000

▲이범규(서울 강동경찰서장)씨 장모상, 이슬기(연합뉴스 기자)씨 외조모상 = 7일 오전 8시, 경북 안동성서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54-850-8501

▲최승정씨 별세. 정경원(한국전자인중 사장)씨 모친상 = 7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2-2258-594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집 국 장 이 경 규
편집국 장 이 집 국 장 이 경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사전경기 컬링·스키점프... 올림픽 성적 족집게 될까

평창올림픽 G-1 평창은 지금

컬링 믹스더블
장혜지·이기정 “패기로 메달도전”

스키점프
김현기·최서우 ‘6번째’ 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대한민국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대표팀 장혜지(왼쪽)와 이기정이 지난달 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훈련을 펼치며 스톤을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해 12월 21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상공에서 레인폴(Rain Fall) 기동을 하고 있다. /공군·연합뉴스

전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사전경기로 힘찬 출발을 알린다. 컬링과 스키점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평창올림픽은 오는 9일 개막해 25일까지 총 16일간 펼쳐진다. 15개 종목, 102경기에서 메달 레이스가 펼쳐지며, 개막식은 9일 오후 8시에 열린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의 시작은 개막식이 아니다. 8일 첫 예선을 앞둔 컬링과 스키점프가 있기 때문이다. 컬링은 젊음, 스키점프는 노련함을 무기로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포문을 화려하게 열 계획이다.

◆“젊음·패기 앞세운다” 컬링 믹스더블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기는 컬링이다. 8일 오전 9시 5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리는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예선 1차전 4경기가 평창올림픽의 공식적인 첫 경기다.

컬링 믹스더블은 남녀 1명씩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른다. 이 종목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올림픽에 데뷔하는 신설 종목으로 한국과 중국, 캐나다,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까지 총 8개 팀이 출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혜지-이기정 조가 핀란드의 오나 카우스테-토미 란타메키 조와 예선 첫 경기를 치르고, 오후 8시 5분에 중국의 왕루이-바더신 조와 예선 2차전을 벌인다. 중국 팀은 지난해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따낸 강호로 접전이 예상된다.

예선은 참가팀 모두 한 번씩 겨뤄 누적 승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상위 4개 팀은 플레이 오프로 우승팀을 가린다.

장혜지와 이기정은 “젊음이 강점”이라며 “패기를 앞세워 메달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컬링 믹스더블에 출전하는 팀 중 가장 어린 두 사람은 홈그라운드

서 치러지는 만큼 ‘편안함’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첫 상대인 핀란드는 반드시 잡겠다는 생각이다. 공고롭게도 핀란드의 토미 란타메키는 평창올림픽 전체 엔트리에서 후보 선수를 제외하면 최고령 타이틀을 가진 백전노장이다.

컬링은 8일부터 11일까지 하루에 2경기씩 매일 열리기 때문에 체력 및 시차 적응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핀란드의 전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장혜지-이기정 조의 기본 좋은 출발이 예상된다.

두 사람은 “경기 일정이 빠듯해서 체력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면서 “베테랑 선수들이 많지만 올림픽 믹스더블이 처음인 건 모두 같다. 패기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6번째 올림픽, 베테랑의 힘...스키점프
이날 오후 8시 15분에는 스키점프 경기가 치러진다.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에서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개인전 예선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스키점프의 개척자로 불리는 김현기와 최서우가 출전한다. 이들은 평창에서 6번째 올림픽을 치른다. 이 기록을 가진 한국 선수는 동·하계를 통틀어 단 3명뿐이다. 비상 이규혁이 앞서 기록을 세웠고 김현기와 최서우가 이번 출전으로 타이틀 달성한다.

두 사람의 목표는 결선 1라운드 진출 이상이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결선 1라운드에 올랐던 두 사람은 30명이 겨루는 최종라운드 진출엔 실패했다.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흠이점이 있기에 지난 대회보다 나은 성적을 기대

하고 있다. 강원도가 고향인 김현기는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기 쉽지 않은 일이다. 기회를 잡아 영광”이라며 “횡계는 제 고향이기도 하다. 더 뜻깊다”고 했다.

결선 출전 인원은 총 50명이다. 월드컵에서 상위 10명 안에 든 선수들은 오는 10일 오후 열리는 결선에 직행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설에 그리워지는 영화 됐으면... 시리즈 명맥 잇고파”

스타인터뷰 영화 ‘조선명탐정’ 김명민

“이제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겼죠. 우리만의 잔치를 한다기보다 관객이 원해서 만든다는 기분이 들어요. 시리즈가 4, 5탄 뒤로 갈수록 책임감이 더 강해지겠죠. 이전 시리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요. 설 연휴만 되면 그리워지는 시리즈가 되었으면 해요.”

최근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김명민은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한국형 탐정 시리즈물의 포문을 연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2011)에 이어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2015)까지 매년 설 연휴에 개봉해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8일 개봉)은 전작들에서 다뤘던 소재와 다르게 과학수사라도 풀리지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 스틸컷. /쇼박스

않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다.

“조선명탐정2가 원작의 부재로 인해 드라마적인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하셨는지 이번 시리즈는 감독님이 확실하게 드라마적인 부분에 욕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플롯은 기존대로 가져왔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흡혈귀라는 소재를 선택해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1,2탄을 답습한 채로 똑같은 트릭으로 간다면 보

‘김민’ 역할로 능청스러움 연기 파트너 오달수와 8년간 호흡

“작품선택 우선순위는 ‘대본’ 완성도 높은 대본 만나 행운”

시는 분들도 심심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웃음)”

대중에게 이질적이고 반듯한 이미지로 자리잡은 김명민이지만, ‘조선명탐정’ 속 ‘김민’을 통해 중년까지의 이미지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미 지난 시리즈를 통해 익살스러운 표정과 초철살인의 대사로 본인만의 코믹 연기를 굳건히 다진 김명민은 이번 편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능청스러움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매 작품에서 인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연기본좌’라는 타이틀도 생긴 김명민. 명배우답게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다 보면, ‘한 사람이 연기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변신은 대단하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캐릭터를 내세워서 인기를 끄는 작품을 일부러 선택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좋은 시나리오에 캐릭터가 잘 녹아있는 작품을 선택했죠. 우선순위는 늘 ‘대본’이 재미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탄탄한 완성도의 대본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이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드라마 ‘하얀거탑’이 그런 작품이예요.”

김명민은 그 어떤 배우보다 대본에 충실하다. 입에 맞지 않는 대사라도 어미, 조사,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 바꾸는 순간 캐릭터가 평면화되고 ‘김명민화’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0 | 해질 / 18:03

2월 8일
음력 : 12월 23일

수도권 날씨
-9 ~ 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5/1
동두천 -12/2
가평 -15/1
파주 -15/1
서울 -9/1
양평 -13/2
인천 -8/0
수원 -9/1
용인 -9/1
평택 -1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북한 주도로 발전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의 리용선 총재 등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공연을 위해 7개월여 만에 다시 방한했다.

▲ 피겨스케이팅 페어 김규은이 지난 2일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친구인 피겨 페어 럽대옥에게 아이새도 브러시, 수분 크림, 립밤, 마스크팩 등을 선물했다.

▲ 질병관리본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국가에서 들어오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입국 시부터 철저히 검역하겠다고 밝혔다.

▲ KBL이 7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원주 DB와의 경기 때 몸싸움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대 선수 한정원의 목과 턱을 쳐 쓰러지게 한 하승진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 대한축구협회가 성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 김봉길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을 전격 경질한 가운데 새롭게 뽑은 U-23 대표팀 감독이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지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 농구만큼 골프를 좋아하기로 이름난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이 짓는 골프장이 내년엔 문을 연다.



[마켓·부동산] 정지원 KRX 이사장 “코스닥, 모험자본의 산실로 재도약” 12



[스포츠] 사진경기 컬링·스키점프 올림픽 성적 죽집게 될까 18



영어 60점 받고도 서울대 합격... 절대평가에 변별력 ‘뚝’

전형 방식 따라 영어 변별력 요동 서울대·고려대 등 등급 점수차↓ 수험생, 대학별 입시 복잡해져

〈2018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시 최초 합격자 영어 등급 분석(추정치)〉

구분	정시 수능 영어 등급간 점수차	최초 합격자 영어 등급 분포(추정)
서울대	1등급(0점), 2등급(-0.5), 3등급(-1.0), 4등급(-1.5) 등	1등급(61%), 2등급 이하(39%) 등
고려대	1등급(0점), 2등급(-1), 3등급(-3), 4등급(-5) 등	1등급(63%), 2등급 이하(37%) 등
연세대	1등급(100점), 2등급(95), 3등급(87.5), 4등급(75) 등	1등급(98%), 2등급 이하(2%) 등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4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첫 시행에 따라 대학별 전형 방식에 따라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요동친 현상이 처음 확인됐다.

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정시모집 대학별 최초합격자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받고 영어는 원점수 60점대(만점 100점)를 받은 지원자가 서울대 공대 원자핵공학과에 합격했다.

또 서울대 최초 합격자 중 영어 2등급 이하 비율은 39%로 추정됐다. 지난해까지 수능 영어 4등급을 받은 지원자가 서

울대 정시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고려대도 영어 2등급을 받은 합격자가 나왔다. 합격자 중 2등급 이하 비율은 37%였다. 반면 연세대는 영어 2등급 이하 비율이 2%이하로 추정되는 등 학교마다 수능 영어의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별 등급제 수능 영어에 대한 등급간 점수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등급간 점수차가 미세하지만 연세대는 상대적으로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한 결과다.

실제로 서울대는 1~4등급간 점수차를 0.5점으로 적용했고, 고려대는 1~2등급은 1점 차이, 2~3등급은 2점차, 3~4등급은 2점차였으나, 연세대는 1~2등급간 점수차가 5점, 2~3등급 7.5점, 3~4등급간 12.5점차를 두는 등 등급간 점수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등급간 점수차가 작은 서울대와 고려대 최초합격자의 영어 1등급자는 각각 61%와 63%였지만, 점수차가 큰 연세대의 영어 1등급자는 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등급 이하 분포 또한 서울대



서울대학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숭실대와 국민대 등은 등급간 4~5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오종은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외관상 단순해졌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입시가 복잡해진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전략적으로 영어를 포기하라는 조언은 하지 않지만,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정했다면 그 대학이 전형 방식에 맞추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와 고려대가 각 39%, 37%나 됐지만, 연세대의 2등급 이하 분포는 2%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대학별 등급간 점수차에 따라 수험생들의 수능 영어 학습량도 차등을 두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서강대는 등급간 점수차가 작아 변별력이 약하고,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은 점수차가 커 영어

한편 대학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등 록은 7일~9일까지 진행되고,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대학별 오는 10일~2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정시 미등록 총원 기간이 작년 포함 지인으로 인해 대입 전형이 1주일 순연으로 미뤄짐에 따라, 전국 199개 은행지점과 30개 우체국에서 휴무일인 2월 10일~11일에도 등록금 납입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달라진 ‘취준생 트렌드’ 학점 지고 자격증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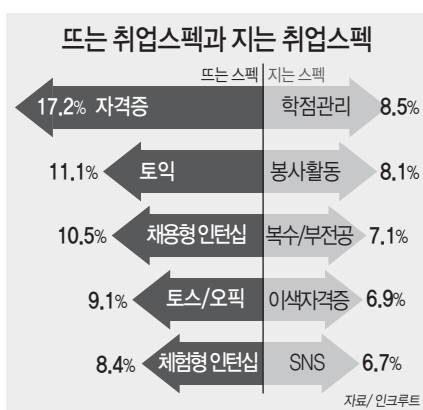
학점보다 자격증·토익 더 중요해

구직자들의 준비하는 취업 스펙이 달라졌다. 과거 학점관리와 복수·부전공이 취업을 준비하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직무자격증과 어학시험이 대세다. 특히 채용형 인턴십을 노리는 구직자들이 일변화했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경험자 707명을 대상으로 ‘뜨는 스펙, 지는 스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들의 취업 스펙 변화가 확인됐다.

‘본인 혹은 주변에서 최근 한창 준비하고 있거나 중시하는 대표적인 스펙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묻자, ‘전공 또는 지원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준비’가 17.2%로 1순위 스펙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익(11.1%)’과 ‘채용형 인턴십 준비(10.5%)’가 각각 2, 3순위를 차지했다.

이런 스펙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



자료/인크루트

에는 34.5%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추세라서’라고 응답했다. ‘주변에서 다들 준비하는 추세라’(26.7%), ‘달라지는 채용 풍토에 적합한 준비 항목이라고 생각되어서’(1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부는 ‘내 개성을 알릴 수 있는 항목이라’(11.4%), ‘상대적으로 준비비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7.5%) 등의 답을

했다. 반대로 과거와 비교해 등한시되는 스펙으로는 ‘학점’(8.5%), ‘봉사활동’(8.1%), ‘복수/부전공’(7.1%) 등 한 때 취업시장에서 맹위를 떨쳤던 스펙들이 ‘지는 스펙’으로 꼽혔다.

학점이나 봉사활동, 복수·부전공 등에 소홀해지게 된 이유로는,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적은 항목이라’(28.3%), ‘기업에서 크게 요구하지 않는 추세라’(24.4%), ‘달라지는 채용풍토에 적합하지 않은 준비항목이라’(14.5%) 등의 답변을 내놨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실무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준비하고, 특히 채용형/채용형 인턴이 구직의 필수사항으로 등극했다”며 “이는 블라인드 채용 등 달라진 채용풍토에 따른 구직 트렌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사랑해요 선생님’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문영여고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경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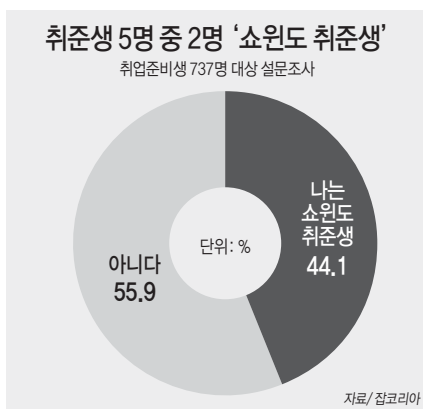
높은 취업 스펙에 좌절... 5명 중 2명 ‘쇼윈도 취준생’

스펙 경쟁에 취업 의지 낮아져

취업준비생 5명 중 2명 이상이 취업 의지가 낮은 이른바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쇼윈도 취준생들은 주로 넘기 힘든 높은 취업 스펙에 좌절해 취업 의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에 따르면, 최근 취준생 737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쇼윈도 취준생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44.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스스로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밝힌 이유(복수응답)로는 ‘상향 평준화되는 스펙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서’(32.6%), ‘취업이 너무 어려워져’(31.4%), ‘가족/지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28.6%), ‘취업을 당연한 일로(너무 쉽게)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지쳐서’(27.4%)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잡코리아

쇼윈도 취준생들은 일반 취준생보다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우울증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자신이 있는지’ 묻는 결과 ▲쇼윈도 취준생 그룹(26.8%)이 ▲일반 취준생 그룹(36.4%)보다 9.6%p 낮았다. 반면 취업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쇼윈도 취준생 그룹(80.9%)이 ▲일반 취준생

그룹(75.5%)보다 5.4%p 높았다.

쇼윈도 취준생 중 취업을 아예 포기한 경우는 소수였다. 쇼윈도 취준생 중 ‘취업 준비를 하며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는 답변이 48.9%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를 하긴 하지만 취업할 것이라 기대는 없다’는 답변이 28.3%,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며 취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답은 16.6%였다.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척만 한다’는 답변은 6.2%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문에 참여한 취준생 대다수(89.0%)는 향후 쇼윈도 취준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쇼윈도 취준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55.6%)’, ‘취업 지원정책 증가(38.7%)’, ‘취업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36.2%)’, ‘우수 강소, 중소기업 지원/홍보(대기업 선호 인식 전환)(28.2%)’ 등을 꼽았다.

/한용수 기자

삼표·쿠쿠 등 중견기업 상반기 공채 모집

2018년 상반기 지원서 2월 중 마감

국내 전체 고용의 약 5.5%를 창출하는 중견기업들의 2018년 상반기 신입·경력 공채가 시작됐다. 모집 부문과 기업별 요구하는 직무역량이 상이하므로 상세 채용공고 확인이 필수다.

7일 사람인에 따르면, 삼표그룹, 쿠쿠, 신도리코, 위닉스, 대명레저산업, 일성건설 등이 2018년 상반기 공채 지원서 접수를 2월 중 마감한다.

삼표그룹은 삼표산업, 삼표기초소재, 삼표피앤씨, 삼표레일웨이, 삼표피씨엔지니어링, 삼표시멘트, 삼표자원개발 등 7개 계열사에서 2018년 상반기 대졸 공채 지원서 접수를 오는 11일 마감한다. 계열사별 모집부문과 필요역량이 상이하고 모집부문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채용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쿠쿠는 2018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9일 마감한다. 모집분야는 전략유통, 해외영업, 영업지원, 제품설계, 회로설계, 금형개발, 디자인관리 등 14개 부문이다. 신입의 경우 자재관리와 생산 관리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중견기업 공채 소식	
자료제공 : 사람인	
(삼표그룹) 2018년 삼표그룹 대졸 공개채용	01.29 ~ 02.11
쿠쿠 2018년 상반기 쿠쿠 신입·경력 모집	01.31 ~ 02.09
(신도리코) 2018년 3월 분기공채	01.25 ~ 02.08
위닉스 위닉스 부문별 신입·경력사원 채용	02.01 ~ 02.28
(대명레저산업) 대명그룹 각 부문 신입·경력 채용	02.01 ~ 02.18

/사람인

신도리코는 2018년 3월 분기공채를 지원서 접수를 8일 마감한다. 신입 모집은 R&D, MR, DSE, 전산직, 해외영업직, 해외업무직에서 이뤄진다. 해외영업직의 경우 ▲영어권 해외취득 취득 및 취득예정자 ▲국내학위 취득(예정)자로서 TOEIC 스피킹 레벨 7 또는 OPic AL(Advanced Low) 이상 수준이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부사장면접, 임원면접), 3차 신체검사 순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위닉스는 상품전략실, R&D 본부, 부품제조본부, 품질경영팀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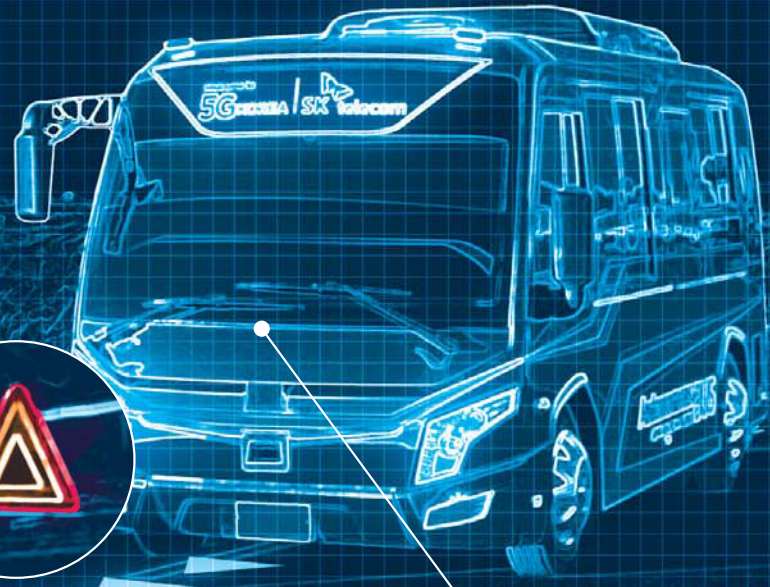
/한용수 기자




 AUTONOMOUS 5G BUS
TEST FIELD
TRAFFIC ACCIDENT

 Take a DETOUR
SPEED LIMIT 50


 주변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알려주는 HD map



 자동차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는 자율주행플랫폼

 도로 위 어떤 돌발상황에도
대비하는 V2X 기술

내일의 세상에선 도로 위 사고를 전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사라지기를.
내일의 길은 누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길이 되기를.
5G자율주행 버스로
SK텔레콤이 향하는 다음 목적지는
'사고 없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내일로 5G는 향해 갑니다

미래 생활의 중심 |  SK telecom

SEE
YOU
TOMORROW!

